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일번지,

전라남도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은 2014년 창간된 농업전문 매거진입니다.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발행처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박홍재
편집인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편집책임자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편집기획 김병삼 박광영 이수영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전화 061-330-2597
팩스 061-335-4199
홈페이지 www.jares.go.kr
발간등록번호 78-60000-000450-07
기획·제작 방형식디자인 02-2082-6388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라이브 전남농업방송



전남농업 E-Book



전남농촌교육농장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Cover Story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직면하여,
'탄소 배출 제로'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국가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이행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상황을 맞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써 친환경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양 건강성을
회복하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존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의미하는 친환경농업.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면적 53.7%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특화 지역인 만큼, 그 위상에 걸맞게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체질을 바꾸는 농업



세상을 바꾸는 농업



삶을 바꾸는 농업

체인지 —體人智— CHANGE



16



28



50

08 **테마이야기** | 환경친화적 농업은 모두를 위한 ‘행복가(加)꿈 농업’
12 **테마탐구**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16 **테마인터뷰** | 함평군 ‘농업회사법인 녹색식품주’ 이선숙 대표
20 **테마컨설팅 I** |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및 인증신청 안내
22 **테마컨설팅 II** | 전라남도, 2022년 새롭게 추진한 친환경농업 관련 시책
24 **테마인포** | 전라남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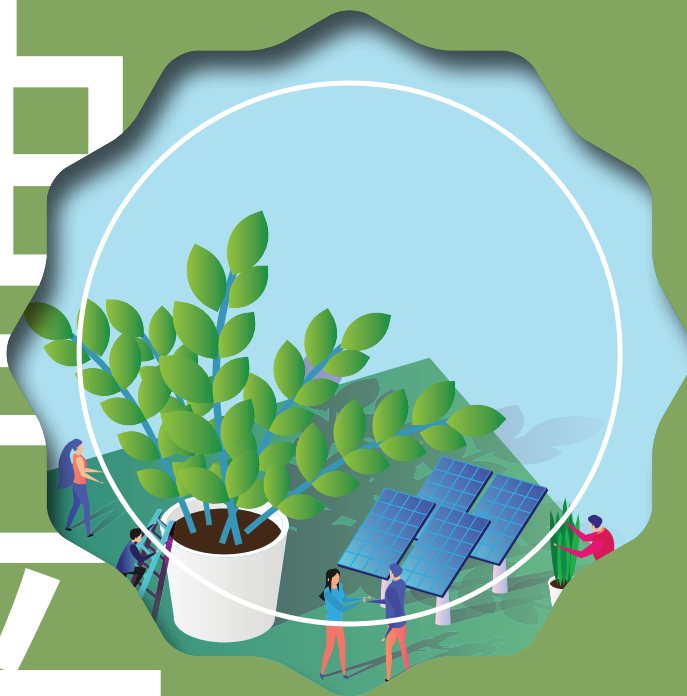
28 **명인·명가, 農談** | 유기농명인 제23호, 보성군 조효익 명인
32 **우리동네 강소농** | 구례군 ‘지리산피아골식품영농조합법인’ 김미선 대표
36 **농업경영 우수사례** |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농업경영 우수경영체 시리즈 5회
40 **청년창농타운** | 나주시 ‘한틀’ 정진안 대표
44 **농 U P 테크** | 전라남도 대표 고품질 밥쌀용 ‘벼’ 품종
46 **병해충정보** | 배추 무름병, 배추·갯 뿌리혹병, 배추·갯 흰녹가루병

50 **여행 N 맛** | 남도 답사 일번지, 강진(康津)
제철이라 더 맛있는, 가을 별미 조리법
56 **귀농·귀촌 길잡이** | 곡성군 ‘석진농장’ 김태현 대표
58 **글로벌팜** | 미국의 유기농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
62 **톡·Talk, 해외시장소식** | 인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식 트렌드
64 **마을기업탐방** | 진도군 ‘산들바람작목반 영농조합법인’
66 **농업인안전 365** | 고령 농업인의 작업 관리
70 **이슈 키워드** | 고향사랑기부제·소비기한 표시제
72 **농업인교육** | 11·12월 교육 일정
74 **J A R E S 뉴스**
78 **독자마당**

量體裁衣 양 체 재의

'몸에 맞도록 옷을 짓는다'라는 뜻으로,
일을 형편에 딱 맞게 처리하여야 함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곡물



체:

체질을 바꾸는 농업

체인지—體人智—CHANGE

Special
Theme

- 08 테마 이야기 | 환경친화적 농업은 모두를 위한 '행복가(加)꿈 농업'
- 12 테마 탐 구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 16 테마 인터뷰 | 함평군 '농업회사법인 녹색식품(주)' 이선숙 대표
- 20 테마컨설팅 I |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및 인증신청 안내
- 22 테마컨설팅 II | 전라남도, 2022년 새롭게 추진한 친환경농업 관련 시책
- 24 테마 인 포 | 전라남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다

환경친화적 농업은 모두를 위한 ‘행복가(加)꿈 농업’

글 |
광주전남연구원 농어축활력연구실
서정원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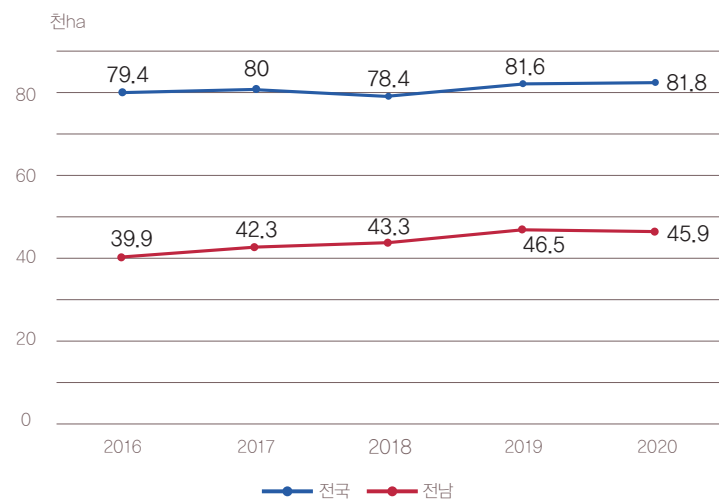
관행적 국가 식량생산기지에서 유기농업 1번지로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원년 선포(2004년)와 더불어 전국 광역자치체 최초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도적 기반 및 육성계획을 일찍이 마련(2005년)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2020년 말 기준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남 총 경지면적(286.4천ha)의 16%(45.9천ha)로 전국 평균인 5.2%를 크게 상회하게 되었으며, 전남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은 면적 기준 56.1%, 농가 기준 47.2%, 출하량 기준 23.6%의 전국 점유율을 달성하게 되었다. 특히, 유기농산물 인증의 경우 최근 5년(2016~2020)간 연평균 37.9%씩 인증면적이 가파르게 늘어나, 전국 대비 61.7%(23.8천ha)를 점유하게 되었으며, 인증농가 기준 57%(13.5천 호), 출하량 기준 38.2%(52.7천 톤)를 차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유기농업 일번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추이(2016~2020)



이처럼 괄목할만한 표면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여 있다. 친환경 인증품목의 특정 품목 편중, 친환경농자재의 원료 다양성 부족, 관행 대비 높은 노동 투입량 및 고비용적 생산구조, 다품목·소량 생산 특성에 따른 연중 생산 및 안정적 판로확보의 어려움, 친환경농업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부족, 실천농가의 고령화와 젊은 후계인력 부족, 관행농가와 연점으로 인한 비산 오염, 그리고 이로 인한 소비자 신뢰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제도권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한계

환경친화적 농업에 대한 개념은 국가적 상황, 지역적 여건, 학문적 영역, 이해 당사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자원의 선순환체계를 무시하고, 산업적 생산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투입 관행농업에 대한 대안으로써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목표로 행해지는 농업이라는 점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정책은 현재까지도 정부가 나서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며, 인증제 중심의 생산물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 또한 여전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육성은 1998년 국가 주도의 ‘환경농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적 틀 안에서 본격화되었다. 제도 도입 초기 친환경농업은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업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육성, 국내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적 접근에 따른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난 4차 계획만 살펴 보더라도 본래 계획되었던 재배면적 확대 목표, 농약 등 투입재 저감 목표, 친환경 부적합물 관리 목표 등 주요 지표들을 달성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글로벌 이슈와 모두를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

2020년 개최된 WEF(Davos Forum)에서는 산업화 이후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우려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 관련 이슈가 향후 10년 이내에 인류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유기농업 관련 단체 중 세계 최대 규모의 조직인 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은 현재의 농업시스템에 대한 성찰과 식량안보, 기후변화, 건강, 생물다양성, 빈곤퇴치 등을 주요 도전과제로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이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전 세계가 지향해야 할 미래농업의 새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대는 식량, 물, 에너지, 생태, 자연환경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발전(K-SDGs)' 목표 및 주요 전략에도 부합한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농업은 '2050 탄소 제로화 계획'의 농업부문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로, 비에너지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이 될 전망이다.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논의의 중심에 '농업환경'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생산자-소비자-기후변화-환경문제 등을 아우르는 선순환 식품체계 구축과 농업 생태자원 보존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환경친화적 저탄소·유기농업의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먹거리 문제를 포함한 우리 앞에 직면한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모두를 위한 '행복가(加)꿈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간 제도권 내에 머물러 있던 인증제 중심, 생산물 중심, 산업경쟁력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서 탈피하여 생산자, 소비자, 정부가 함께 가꿔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 전환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외연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증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적합한 생태·경제·사회·문화·책임성이 종합적으로 통합된 인증시스템, 즉 인증(생산자) 위주, 안전성(소비자) 위주를 넘어 농업과 환경과 사람의 조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환경친화적 농법으로의 전환, 생산자의 경제성 확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안전성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농업시스템으로의 접근이 요구되며, 다양한 농업환경 이슈에 대한 R&D 추진체계 구축 및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주요 현황(재배면적 기준 상위 30대 품목)

품목명	농가 수(호)		면적(ha)		인증계획(톤)		인증건수(건)	
벼(쌀)	14,647	63	21,978	59	223,478	48	4,301	47
밤	1,830	7.9	3,070.1	8.3	3,185.0	0.7	460	5.0
고구마	285	1.2	1,320.8	3.6	38,434.0	8.2	196	2.1
찰벼	587	2.5	975.0	2.6	9,054.1	1.9	265	2.9
고사리	634	2.7	918.4	2.5	1,347.6	0.3	225	2.5
찰흑벼	387	1.7	746.3	2.0	5,676.8	1.2	66	0.7
이탈리안라이그라스	84	0.4	722.9	1.9	16,205.7	3.5	57	0.6
녹차잎	337	1.4	536.0	1.4	1,972.8	0.4	210	2.3
황철(기타)	92	0.4	446.5	1.2	280.7	0.1	88	1.0
건고사리	326	1.4	445.7	1.2	201.5	0.0	155	1.7
수단그라스	35	0.2	327.8	0.9	9,523.5	2.0	29	0.3
유채	129	0.6	324.1	0.9	1,988.8	0.4	11	0.1
피	70	0.3	317.7	0.9	7,662.1	1.6	17	0.2
귀리	58	0.2	281.8	0.8	2,624.1	0.6	30	0.3
보리	86	0.4	262.2	0.7	3,377.7	0.7	59	0.6
표고버섯	250	1.1	255.6	0.7	5,272.5	1.1	157	1.7
매실	146	0.6	245.2	0.7	824.3	0.2	107	1.2
흑벼	60	0.3	222.0	0.6	1,942.9	0.4	32	0.3
두릅	100	0.4	211.3	0.6	118.1	0.0	84	0.9
밀	96	0.4	187.0	0.5	2,539.4	0.5	58	0.6
블루베리	353	1.5	140.9	0.4	881.5	0.2	322	3.5
황철(생철)	33	0.1	137.0	0.4	337.6	0.1	34	0.4
참쌀(일반)	55	0.2	131.3	0.4	873.2	0.2	16	0.2
배추	53	0.2	112.7	0.3	7,490.7	1.6	35	0.4
산양삼	22	0.1	104.8	0.3	2.7	0.0	22	0.2
시금치	70	0.3	96.6	0.3	2,745.4	0.6	30	0.3
양파	60	0.3	88.6	0.2	5,230.4	1.1	60	0.7
단호박	104	0.4	88.5	0.2	4,023.3	0.9	106	1.2
호두	19	0.1	73.7	0.2	18.3	0.0	16	0.2
무화과	121	0.5	72.7	0.2	1,514.4	0.3	128	1.4

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2022.7.) 분석 자료로 면적 기준 적용 시 전남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중 상위 30개 품목의 면적 비중은 93.7%, 쌀은 59.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됨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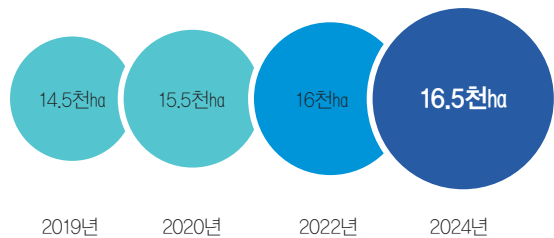
출처 | 전라남도청 · 전라남도친환경농업과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2004년부터 ‘5개년 계획’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2005~2009)’, ‘유기농 생태 전남 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2010~2014)’, ‘생명의 땅 전남 실현을 위한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5~2019)’을 통해 국민의 안전먹거리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제1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지로 성장하여,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업 = 전남’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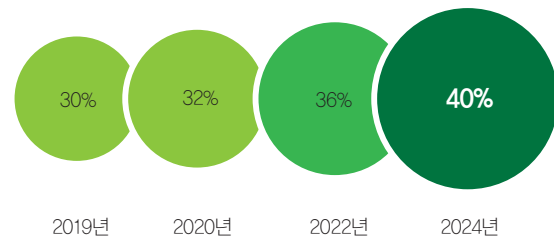
2019년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실현을 위해,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0~2024)’이 수립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을 유기농 중심으로 선도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의 건강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민선 7기 농업·농촌 정책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기농업 중심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0~2024) 목표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친환경 인증품목 다양화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최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로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다. 전체 농가 중 친환경 실천농가의 비율이 높아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의 추가 보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전라남도의 강력한 의지와 대학 및 연구소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관련 기술 및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지녔다.

반면에 농가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새로운 영농기술 도입과 고소득 작목 전환이 어려워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약점도 노출되었다. 또한, 작물별 친환경농업 비중의 경우 식량작물이 높고 기술과 자본이 있어야 하는 시설원에 분야는 열세로 나타났으며, 친환경농산물 원물 생산량은 많으나 가공 식품업체 수가 적고 영세하여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남도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100개의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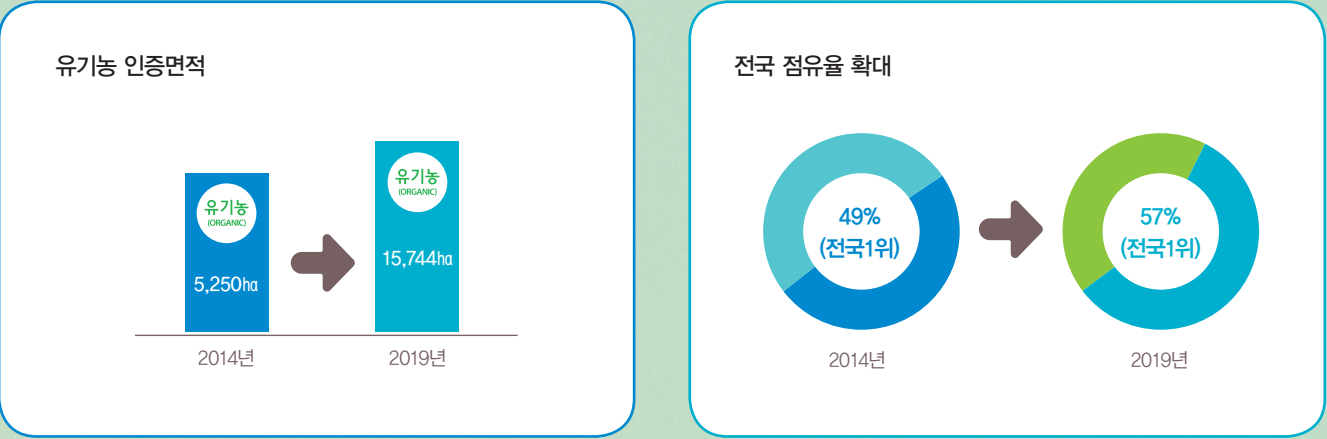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6대 핵심과제

6대 핵심과제	단위과제 (100개 사업)	주요 내용
품목 다양화 기반 구축	11개 사업	[생산·유통 기반 확충] •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친환경농업 혁신시범단지 조성 • 친환경과수·채소 전문단지 및 육묘장 조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소득 안정	12개 사업	[특색별 단지화 공동영농] • 직불금 차등지원 유기농업 생산차액 보전 •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 유기농업 자체 지원
혁신기술 보급	21개 사업	[유기재배 기술개발 보급 확산] • 주요 작물 유기재배 매뉴얼 개발 및 현장적용 •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사업 • 새끼우렁이 농법 보급, 유용미생물 공급
가공·유통 및 소비 활성화	23개 사업	[산지 가공·유통 및 수출 활성화] • 학교 및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 물류센터 활성화,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 • 유통가맹점 확대, 먹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역량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	26개 사업	[유기농 자율참여로 안전·안심 이미지 제고] • 친환경농업 전문 후계농업 인력 육성 • 친환경교육관 운영, 유기농명인 발굴 • 친환경(농·축산물·식품) 인증 및 잔류농약검사 지원
농업환경 보전 기능 강화	7개 사업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지원 •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농업용수 수질 개선 • 자원순환용 가축분뇨 처리사업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생명의 땅 전남 실현을 위한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면적 증가로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범국민적 관심과 전국화를 주도하였다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2014년 대비 친환경농가 수는 0.13배 감소하였으나, 농가당 인증면적 확대로 유기인증면적은 2.2배 증가하였다. 특히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을 줄인 환경친화형 농업을 추진한 결과 생태환경의 다양성 보존과 양호한 수질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종의 발견으로 농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역대 고소득 농업인이 지속 증가하고 친환경농업이 농업의 활로라는 인식 확산과 지역 경기회복에 이바지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증가는 전라남도 내 친환경농자재 업체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5~2019) 성과



‘1차~3차 5개년 계획’ 연도별 추진 경과

회기	연 도	주요 추진 내용
수립	2004년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명식품 생산 '제1차 5개년 계획' 수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실시(친환경농산물 인정 소비자 확보)
제1차	2005년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 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시상규정 제정, 친환경농산물 우수 음식점 지정제 도입
	2006년	• 친환경농산물 상호공제제도 도입, 친환경농업 학교 교과서(초등3) 수록
	2007년	• 친환경농업 책임운영 모델 도입, 친환경농업 선도마을 지정제 도입
	2008년	•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 기금 조성,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2009년	• 유기농 생태 전남 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수립,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전심보험제도 도입,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교육관 건립(3개소)
제2차	2010년	• 유기농생태마을 육성, 전남대친환경농업연구소 건립
	2011년	• 전라남도 유기농명인 지정 운영조례 제정, 유기농 종합보험제도 도입,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조례 제정
	2012년	• 친환경농자재 유통미생물 배양센터 건립(19개소), 저비용 새끼우렁이 농법 시행
	2013년	•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설계), 친환경 인증비 전액지원제 시행
	2014년	• 생명의 땅 전남 실현을 위한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저비용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내실화(인증관리 강화, 보조금 지원 체계 개편)
제3차	2015년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기농 쌀 전면 공급 • 유기농 지속 직불금 사업 도입(전국 최초)
	2016년	•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민음 주는 유기농업 육성계획' 수립 • 무농약 지속 직불금 사업 및 품목별 차등지원 제도 도입(전국 최초)
	2017년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개소 • 전국 최초 '친환경농업지구' 선포(구례군)
	2018년	• 친환경비료 정책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친환경농업 직불금 품목별 차등지원 제도개선 건의 반영 • 친환경 버 위주에서 과수·채소 등 품목 다양화로 정책 전환
	2019년	•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 실현을 위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사업 선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 시범 추진

친환경 원물로 꿈꾸는 더 건강한 세상

함평군 '농업회사법인 녹색식품(주)'
이선숙 대표



판매업으로 만난 친환경

이선숙 대표는 원래 가정주부였다. 남편과 아이 셋을 낳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평범한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위중한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렇게 쓰러진 시어머니는 16년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 계셨어요. 그 와중에 시아버님도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요. 전 다른 데를 돌볼 겨를이 하나도 없는 생활을 15년 이상 이어왔던 셈이지요.”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옛말이 있지만, 이 대표는 두 어른을 끝까지 살뜰히 모신 후 먼길로 보내드렸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기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제 막 폐업을 준비 중인 한 매장이었다.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게였지만 이 대표에게는 새로운 희망처럼 다가왔다. 그래서 인수를 결심했다. 물론 주위에 그런 결정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1년 버티면 오래 버티는 자리였거든요. 짧게는 8개월, 길면 1년 단위로 계속 간판이 바뀌는 가게였으니 다들 들어가면 망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 대표에게는 그런 만류와 걱정이 들리지 않았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자신감과 절박함이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결심과 함께 선택한 아이템은 친환경 제품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고, 건강을 위해서는 제대로 키운 것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정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십수 년 동안 시부모님을 돌보았던 그의 경험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렇게 문을 연 매장은 생물인 채소와 친환경 원물을 재료로 한 가공식품들로 가득 채웠다.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꾀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무엇이든 더 건강한 것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은 그보다 더 단단하게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매장을 열고 운영하다 보니까, 배송이 너무 늦게 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본사에서는 순차적으로 여러 매장을 돌게끔 일정표를 짜놓았으니 저한테만 특혜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시작한 일이 성공에 까지 이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목표도 계획도 없이 시작한 일은 이리저리 방황하기 마련이기 때문. 하지만 동함평산단에 자리 잡은 녹색식품 이선숙 대표의 경우, 이러한 예상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오직 친환경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는, 동네 작은 매장을 전라남도를 대표 하는 친환경 가공식품 회사로 성장시켰다.

글·사진 |
정환정(작가)



'라이브 전남농업방송'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이 대표가 생각해 낸 방법은 매일 새벽 직접 물류 창고에 가 전날 발주한 물건들을 싣고 오는 것이었다. 덕분에 채소 같은 경우 그가 직접 고를 수 있었고, 덕분에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진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들여놓은 물건들은 몇 개를 주문해도 직접 자전거를 타고 무료 배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기왕 배달시키는 김에'라는 생각을 하게 된 소비자들의 주문은 자연스레 늘어났다.

주문이 늘자 매출 또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래서 남들은 1년을 못 남기고 간판을 내리던 자리에서 이 대표는 2호점까지 늘였다. 2호점에서도 그의 영업 수완은 빛을 발했다. 다른 매장에서는 원물 그대로 팔던 옥수수나 매실 같은 것을 직접 삶거나 유기농 원당을 이용해 예쁜 항아리에 옮겨 담아 판매함으로써 더 높은 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었다. 특히 보는 이들이 그득한 마음을 갖도록 매장을 가득 채우는 전략이 주효했다. 그뿐만 아니라 잠시 아이를 맡아주는 사랑방 역할도 자처한 데다, 판매 후 남은 식재료들은 직접 밥을 해 드시는 경로당에 무료로 기부를 하는 등 마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랬던 이 대표가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결심한 것은 더 나은 제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



내 마음에 찰 때까지 제대로 만든 채소수

이 대표에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 그중 둘째인 딸이 큰 수술을 하게 되었다. 회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 마음에, 기존에 제조되어 판매 중인 채소즙이나 채소수들은 성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취급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모아 직접 채소수를 만들었다.

“무, 무청, 당근, 우엉, 표고버섯 등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정해진 배합비대로 넣고 정성을 들여 끓인 물이 채소수입니다. 그것을 먹고 나았다 할 수는 없지만, 몸조리 과정을 큰 탈 없이 넘기고 지금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 대표는 그 채소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 누구보다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해 더 정직하게 만들었기에 품질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2015년 나주의 식품공장을 빌려 채소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제조업으로의 도전이었다. “당시만 해도 젊었으니까 무서운 게 없었어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에 그저 신이 났지요.”

건강에 좋은 채소를 더 손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품도 다양화했다. 레드비트와 늙은 호박, 양파, 도라지와 사과 등을 즙 형태로 제조함으로써 섭취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중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은 바로 양배추즙이었다.

“유기농 양배추만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시기에 따라 양배추를 수확하는 전국의 농가를 찾아다녔지만, 지금은 전라남도에서 작기에 맞춰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가를 만난 덕분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다른 지역보다 전라남도 양배추가 훨씬 좋다”며 엄지를 치켜올렸다. 다른 곳은 불가능한 ‘일동 양배추’를 오직 전라남도에서만 재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서리를 몇 번이나 맞으며 단단하게 큰 덕분에 속이 훨씬 달아서 먹기에도 좋고 속을 다스리는 데에도 효과가 좋다는 피드백을 받고는 한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배추즙에 혹시 위장병 약을 탄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저희 양배추즙을 드실 때는 항상 속이 편안하다가 잠시라도 끊게 되면 금세 속이 안 좋아 진다니세요.”

환하게 웃는 이 대표의 얼굴이, 이제 막 자른 양배추 속만큼이나 빛났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건강을

물론 이 대표에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비가 몇 번이나 있었다. 지금이라고 순탄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했다.

“공장장급 기술자를 기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진득하게 일을 배울 사람을 구하지 못했어요. 요즘 어디든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니 저희도 이겨내야 할 문제겠지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고난에 당당히 맞서 지난 2021년에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가공·유통 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한 이 대표. 그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정성껏 재배해준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녹색식품에서 정한 작기에 맞춰 농사를 짓느라 재배 실패가 이어지던 초반의 노고에 대해 특히 사의를 표했다. 그런 이 대표의 목표는 누구나 더 건강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누가 임명해주지는 않았지만, 저 스스로를 ‘국민건강 자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했거든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희 제품을 통해 더 튼튼해지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및 인증신청 안내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전문 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관련하여 친환경 인증표시와 인증신청 및 절차에 관해서 소개한다.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표시

친환경 농축산물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 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 형태: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국새' 모양의 사각 프레임
- 명칭: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하게 표현
- 색상: 초록색(포장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색과 청색을 예외적으로 허용)

※비고: 천연·자연·무공해·저공해·내추럴(Natural)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강조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친환경 인증 종류별 표시 방법

유기농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재배 농산물 또는 유기농
- 유기재배○○(○○은 농산물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한다), 유기축산○○, 유기○○



무농약

- 무농약,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무항생제

- 무항생제,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 또는 무항생제 사육○○



유기가공식품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 유기농○○ 또는 유기○○



친환경 농축산물의 종류 및 기준

-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2종류):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친환경축산물 인증 종류(2종류):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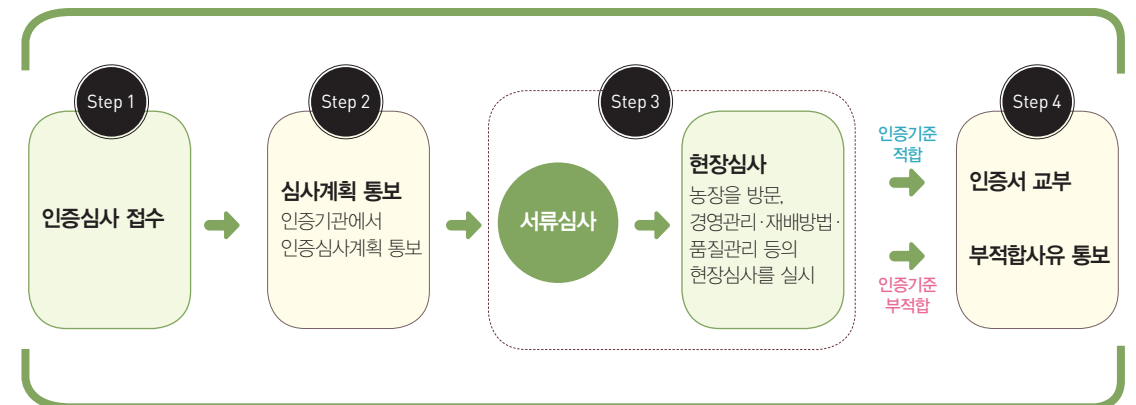
종류	기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전환기간: 다년생 작물은 최소 수확 전 3년, 그 외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 ·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½이내 사용 ·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친환경 인증신청 안내

●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친환경 농축산물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취급자가 있다.
-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에서 할 수 있다.

● 신청 후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받기까지의 과정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되는지 확인한다. 인증서 발급 후 1년 동안 인증이 유효하다.

※인증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인증신청서,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관련자료,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또는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가 있다.



전라남도, 2022년 새롭게 추진한 친환경농업 관련 시책

출처 | 전라남도 '2022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시행지침'

전라남도는 2022년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유기농을 선도하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실현을 목표로,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품목 다양화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시행 중이다. 이에 2022년 달라진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 관련 시책을 정리한다.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지원

친환경농업 관련 재배농법 및 유통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지(월간 친환경)를 보급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친환경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 **핵심내용:** 도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있는 농가·청년농업인에게 유기농 실천 선도기술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기술지 보급
※도내 친환경농가 28,000호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단지 대표, 친환경농업인,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농업인 중 2,80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인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차적으로 수요조사를 마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친환경농업 정보(친환경농업 관련 최신기술, 재배농법, 유통정보 등)를 제공하는 전문기술지 구독을 지원합니다.

문의: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정책팀(061-286-6323)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자부담 감면

친환경농업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융자 받는 금액(기존 10%)의 자부담을 전액 감면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내용:** 융자 자부담
[중전] 자부담 10% 확보 의무(융자받는 금액 기준 최소 10% 이상)
[변경] 자부담률 10% → 0% 개선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도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수출·농자재 생산 관련 자금을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관련 법인,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입점자, 유통업체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설치를 비롯한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정책팀(061-286-6323)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인력으로 제초하는 친환경농업인의 노동력 부담 경감과 왕우렁이 피해담의 기계 제초 전환을 위해 중경제초기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친환경농업인 부담 경감 및 벼 생산성 향상
- **핵심내용:** 친환경 중경제초기(승용형, 보행형, 논두렁형)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친환경 중경제초기(승용형, 보행형, 논두렁형) 구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벼 인증면적 10ha 이상(보행·논두렁 1ha 이상)인 친환경 농업농가 및 법인을 지원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고효율 등으로 제초 인력확보가 어려운 친환경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왕우렁이가 방제하기 어려운 잡초(여뀌, 물질경이, 자귀풀 등)를 제거할 수 있어 친환경재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의: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육성팀(061-286-6843)



친환경 해충방제기 지원

사과·배·아열대과수 등 친환경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과수농가에 해충방제기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안정적으로 친환경과수를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
- **핵심내용:** 친환경 해충방제기(광방충기, 해충포획기)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친환경 해충방제기란 무엇인가요?**
 - 해충의 본능적인 생리 생태를 이용한 파장 및 광을 활용하여 해충을 기피하거나 유인하여 방제하는 것입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친환경 해충방제기(광방충기, 해충포획기) 구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과수 친환경인증 받은 농업인 및 법인에게 지원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친환경방제로 살충제 사용을 줄여 친환경과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문의: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육성팀(061-286-6843)

전라남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20년 발표한 식품안전전략에서 2030년까지 EU 전체 농경지 25% 이상을 유기농 재배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친환경 인증면적 가운데 53.7%(2021년 12월 말 기준)를 전라남도가 차지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하여 압도적 수준인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 인증 현황을 살펴보자.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전라남도청

최근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은?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2006년부터 매년 5.8%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2020년 5.2%에서 2025년까지 10%로 늘리고, 친환경농식품 구매 비율은 2020년 27.5%에서 2025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1년 친환경농산물 관련 인증 현황

구분	유기농	무농약(무항생제)	계
건수(건)	8,872	18,915	27,787
농가 수(호)	25,362	29,992	55,354
인증면적(ha)	40,663	34,772	75,435
출하량(톤)	168,878	348,505	517,383

친환경농산물 관련 연도별 인증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수(건)	24,256	25,091	26,628	28,435	27,787
농가 수(호)	59,423	57,261	58,055	59,249	55,354
인증면적(ha)	80,114	78,544	81,717	81,827	75,435
출하량(톤)	496,380	450,886	494,306	495,794	517,383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1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

친환경농업 확대로 얻는 효과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



생물다양성 증대



소비자 신뢰 제고

광범위한 협력 기반
지속가능성 제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전라남도는 친환경 인증면적이 전국의 53.7%를 차지할 정도로 친환경농업이 특화된 지역이다. 향후 전라남도는 유기농업 확산과 과수·채소 중심의 인증 품목 다양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고소득 농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100%
ORGANIC

(2021년 12월 말 기준/단위: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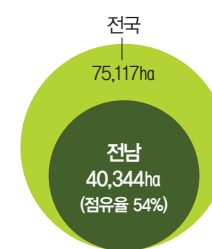
시도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시도명	총계	유기농	무농약	전체면적 전국 순위	전체면적 비율(%)
전라남도	40,343.8	25,816.1	14,527.7	1	53.71
경기도	5,364.7	1,549.9	3,814.7	2	7.14
전라북도	5,320.1	2,334.3	2,985.8	3	7.08
경상남도	5,271.0	2,224.1	3,046.9	4	7.02
충청남도	4,856.8	2,836.2	2,020.6	5	6.47
강원도	3,660.3	1,566.4	2,093.9	6	4.87
경상북도	3,655.1	1,149.3	2,505.8	7	4.87
충청북도	2,991.5	1,637.9	1,353.7	8	3.98
제주특별자치도	2,221.6	1,266.7	955.0	9	2.96
광주광역시	592.4	79.4	513.0	10	0.79
인천광역시	491.4	54.3	437.1	11	0.65
세종특별자치시	126.1	17.0	109.1	12	0.17
울산광역시	86.0	2.4	83.5	13	0.11
부산광역시	51.2	1.2	50.0	14	0.07
대구광역시	46.7	14.0	32.8	15	0.06
서울특별시	19.8	0.0	19.8	16	0.03
대전광역시	18.3	3.3	15.0	17	0.02
총계	75,116.8	40,552.4	34,5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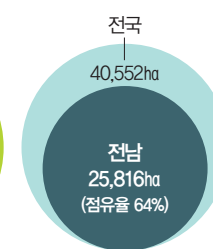
자료: 전라남도청 친환경농업과

전국 대비 전라남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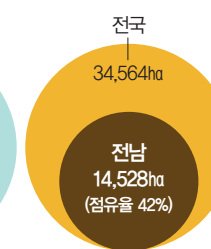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유기농 인증면적



무농약 인증면적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인증면적

(2021년 12월 말 기준)

구분	인증면적(ha)	점유율(%)
벼	27,012	67.0
임산물	5,615	13.9
식량	3,173	7.9
특작	1,554	3.9
채소	1,133	2.8
사료	1,061	2.6
과수	796	2.0
총계	40,344	

자료: 전라남도청 친환경농업과



인: 세상을 바꾸는 농업 — 체인지—體人智—CHANGE

“전쟁을 잘하는 이는 패하지 않을 상황을 조성한 후에
적이 패할 틈을 놓치지 않는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략으로 ‘선승구전(先勝求戰),
‘이길 만한 상황을 만든 뒤에 싸움터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유리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것,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할 만한 결실을 위해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은 모든 준비가 완벽했을 때 생겨납니다.

Index	28	명인·명가, 農談 유기농명인 제23호, 보성군 조효익 명인
	32	우리 동네 강소농 구례군 ‘지리산피아골식품영농조합법인’ 김미선 대표
	36	농업경영 우수사례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농업경영 우수경영체 시리즈 5회
	40	청년창농타운 나주시 ‘한톨’ 정진안 대표
	44	농 U P 테크 전라남도 대표 고품질 쌀쌀용 ‘벼’ 품종
	46	병해충정보 배추 무름병, 배추·갯 뿌리혹병, 배추·갯 흰녹가루병

친환경농업,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배 농사를 짓고 있는 조효익 명인은 대학을 다니다가 군에서 제대할 무렵인 25세 때 과수원을 물려받았다. 병환 중이신 아버지를 위한 자식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배 과수원에서 2005년 친환경농업을 시작하였고, 2007년에는 본격적인 유기농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2019년 조 명인은 전라남도 유기농명인 ‘제23호’로 지정되었다.



최고의 기술,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

“2005년 무렵, 보성에서 배 농사를 잘 짓는 선배님 두 분과 친환경배를 해보자고 의기투합했지요. 자료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야말로 백지인 상태에서 보르도액¹⁾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무농약배 농사에 도전했습니다.”

조효익 명인은 5년 동안 관행농업을 하다 30세 때 무농약 인증을 받고, 3년 후 유기농업으로 전환하였다. 유기농산물 인증은 토양 재배 관리와 작물의 병해충 방제, 토양 및 수질 분석 등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런 까닭에 과수 품목, 특히 배는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상황. 병해충에 약해 한 번 피해를 당하면 수확이 어렵고, 회복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친환경농업에 도전한 조 명인은 배를 갈아엎기도 하고, 3년간 생과 수확을 못 했을 정도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다.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가 배운 최고의 과수 농사기술입니다. 산속에 따로 떨어진 배 과수원에는 흑성병²⁾ 등의 병해가 적은 것에 착안해서 풀 관리를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의 농법을 실천했어요. 천적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것이지요. 또 건강한 토양관리를 위해 유기농 퇴비와 낙엽, 전정 가지 등을 함께 작업해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었고요, 고압 추출 친환경 석회유황과 보르도액, 각종 식물에서 추출한 친환경 해충약제를 직접 만들어 유기농업에 최적화된 병해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 명인은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천연 약제를 적극 활용한다. 살충제로 때죽, 마삭줄, 제충국, 장록(자리공) 추출액 등 4종을, 살균제로는 친환경 석회유황, 보르도액을 이용하고 천연영양제로 죽순, 야끼시나무 추출액을 사용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1번지인 전남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친환경 교육 실시로 전남의 유기농업 실적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유기농명인을 지정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유기농명인을 소개합니다.



1) 신화갈슌에 황산구리 용액을 섞어서 만든 액체 살균제

2) 사과·고구마 따위의 어린잎, 줄기 또는 열매에 옅은 흑색의 얼룩무늬가 생기는 병



지역의 친환경농가와 힘을 모아 창립

농업회사법인 녹차골 주식회사는 친환경배 과수원과 유기농배 인증을 받은 10ha에 이르는 면적에서 3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생산 및 가공, 유통까지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 수입과일로 인한 가격 폭락 등 급변하는 농산물 시장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 2011년 조 명인이 지역의 친환경농가와 힘을 모아 창립하였다. 조 명인은 현재 이곳의 대표를 맡아 친환경배를 주로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고 있다.

“보성은 녹차로 아주 유명하지만, 반면에 친환경과수에 대한 인지도는 아주 낮은 지역이에요. 녹차로 유명한 보성에서 이질감 없이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름을 ‘녹차골’이라고 지었습니다. **‘녹차골은 친환경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목적에서 순수한 농민들이 농심으로 모여 만든 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성군 벌교읍은 배를 재배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바다와 1km 정도 떨어져 있어 해풍의 영향으로 배의 당도와 색상이 뛰어나며, 육질이 탁월하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빨리 꽃이 피고 수확할 수 있어서 시장에 제일 먼저 출하하는 이점도 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 녹차골 주식회사에서는 **친환경배와 이를 가공한 ‘녹차골 유기농 맑은배즙’을 생산** 중이며, 참다래잼과 딸기잼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배와 배즙은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jnmall.kr)**나 보성군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보성몰(mall.boseong.go.kr)**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녹차골 배는 철저한 잔류 농약 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대 친환경농업센터, 인증업체 등을 통해 1년에 4번 이상 잔류 농약 검사를 하거든요. 또한, 농산물 가공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유기가공식품인증 받았으니 안전을 믿으셔도 됩니다.”



경쟁력을 위해 많은 농가가 함께해야

현장에서 익힌 유기농법 노하우와 재배기술을 지역 농업인과 공유하는 것도 조 명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 중 하나이다. 친환경농업은 함께할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주위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많은 농가가 함께 해야 경쟁력이 있어요.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우선 수익 창출이 되어야 힘들어도 지속할 수 있기에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유기농명인으로서 저의 역할은 보성군의 친환경과수 농가를 늘리고 기술 보급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주로 전남지역에 한정된 판로를 전국으로 확장 및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친환경농가가 경제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 명인은 ‘유기농명인으로 지정된 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커졌다’라며, 앞으로 ‘2차 가공 분야에 연구와 투자를 하고, 3차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6차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친환경농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친환경배의 생명은 소비자와의 약속’이라는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생산하고 유통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 친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돌아켜 보면 지금까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친환경농업의 성공 요인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오늘도 조 명인은 영농일지 작성을 빼먹지 않는다.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자신의 노하우를 지역 농가와 공유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식화하려는 목적에서다. 그런 조 명인의 모습이 ‘적토성산(積土成山)’,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는 뜻의 한자성어와 닮은 듯하다. ☺



농업회사법인 녹차골 주식회사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마동길 190
문의: 061-858-2122



농촌 창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상생’

구례군 '지리산피아골식품영농조합법인'
김미선 대표

다양한 전라남도산 농산물과 그것을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제품으로 가공하여 뛰어난 맛과 품질로 주목받고 있는 전라
남도 강소농(強小農)을 소개합니다.

지리산피아골식품은 김미선 대표가 2011년 설립한 발효식품생산 전문회사다.
김 대표는 회사 설립 당시 3가지의 경영이념을 세웠다. 첫째 농가와 주민
들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상생과 공존', 둘째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원재료만 고집하는 '바른 먹거리 제공', 셋째 소중한 전통 위에 철저한
위생공정을 더하는 '전통과 위생의 조화'이다. 이 3가지 다짐이자 약속을
김 대표는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피아골 처녀이장 미선씨, 창업하다

2014년 6월 TV 프로그램 '인간극장'에 '피아골 처녀이장 미선씨'라는
제목으로 출연했던 김미선 대표. 당시 29세의 3년 차 이장이었던
김 대표는 마을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생기자, 옛날의 정겨운 마을을 되찾기 위해 아버지의 뒤를 이어 27살에
이장이 되었다.

“200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인 피아골로 돌아왔어요. 귀향 후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피아골에 된장
공장을 차려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창업을 위해 한국벤처농업대학에
다니며 공부했고, 이후 2011년에 향아리 50개로 장류 제조를 시작
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이장이라고 화제가
되었던 것이요.’”

당시 김 대표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콩, 고사리, 산나물 등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면서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을 이끄는 청년농업인으로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2022년 현재, 김 대표가



향아리 50개로 시작한 지리산피아골식품은 청정 지리산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지리산 고로쇠
수액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발돋움하였다. ‘피아골 미선씨’라는 브랜드로 고로쇠
된장과 냄새 없는 청국장, 찹쌀고추장, 고로쇠간장
등의 장류뿐만 아니라 장아찌류와 고로쇠수액, 산야초
발효액, 건나물 등 **지리산 특산품을 국내외에 판매하는,**
축망받는 청년농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2015년부터 전통 장류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지난 8월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도움으로 고로쇠 시래기된장국과
초간편 3분 나물 등 지역특화 가공식품을 싱가포르에
처음 수출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의 모범사례가 되다

“20대의 젊은이가 전통 장류를 만든다고 하니까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재료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국내 유통망 진입이 어렵기에, 그래서 해외시장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해외 진출 역시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노력으로 밀어붙인 결과 김 대표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21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수출상을 받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농식품 수출 현장의 우수한 성과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경영체를 선정하여 수출 사례와 성공 요인을 확산하기 위한 대회다. 김 대표의 지리산피아골식품은 FDA(미국 식품의약국) 시설등록 인증, ISO22000(식품 안전경영시스템) 및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는 등 수출을 위해 투자 또한 아끼지 않았다.

“2021년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선정한 ‘스타청년농업인’ 30명에 뽑히기도 했어요. 국산 농산물의 연구성과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 같은 역할인데, 30명은 식량작물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국에서 인지도 높은 청년농업인이었습니다. 저는 ‘융복합산업’ 품목으로 선정되었어요.”

이미 2019년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2020년 3월에는 전라남도 ‘3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되었던 김 대표이다. 이 때문에 지리산피아골식품은 1·2·3차산업을 복합하여 농가에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농촌 융복합산업(6차산업)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이곳에서 김 대표는 오늘도 관광 인프라와 스토리를 융복합하여,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대하는 새로운 농촌융복합 성공모델을 구축 중이다.



청년에게 농촌의 비전을 제시하다

구례군 토지면에 위치한 지리산피아골식품은 공장과 연구소 외에도 농특산물 판매장과 체험교육장, 식당, 객실 4동 등을 운영 중이다. 체험교육장은 2015년 6차산업 체험교육장으로 선정되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된장학교 체험, 감장 체험, 고로쇠 체험, 산나물캐기 체험, 남도음식 체험 등 다양한 계절별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농촌에 더 많은 청년이 유입되어 활력소가 되도록, 피아골에 청년을 위한 교육시설을 마련해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싶어요. 그리고 천연 먹거리와 자연 관광을 즐기며 지역 문화도 배울 수 있는 교육원과 발효식품 공원을 설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더욱 많은 사람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전통 장류를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수제 고추장 만들기’라는 이름의 **체험활동 꾸러미**를 만든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방부제 성분과 합성첨가물이 일절 들어있지 않은 100% 국내산 천연재료로 만드는 전통 방식의 발효식품으로, 옛기를 발효소스, 신안천일염, 고로쇠간장, 냄새 없는 청국장가루, 고춧가루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수제 고추장을 만들 수 있다. 이 **체험활동 꾸러미**는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www.jnmall.kr)**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리산피아골식품의 다양한 제품 주문은 자체 쇼핑몰(www.jiripia.kr)**과 **스마트스토어(smartstore.naver.com/jiripia)**, **남도장터를 이용**하면 된다.

“저는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청년들이 단순히 장류 제조와 판매만 배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3차산업을 어떻게 접목해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지역에 돌아가 농촌 창업을 하는데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이장으로 맹활약했던 ‘피아골 미선씨’는 이제, 청년에게 농촌의 비전을 제시하며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믿음직한 미선씨, 그래서 미선씨는 언제나 옳다. ☺

체험활동 꾸러미 ‘수제 고추장 만들기’



포장



구성품



완성품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농업경영 우수경영체 시리즈’_ ⑤

화순군, 젖소 원유 부가가치 향상 경영모델 개발

화순군 ‘온드리 목장’
김정석 대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우수 농업인 및 경영체의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경영모델’ 사례를 2022년 한 해 동안 연속 기획으로 소개합니다. 5회는 화순군의 젖소 원유 부가가치 향상 경영모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전국 농업소득 1위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농가 경영개선사업 중 하나이다. 농가 경영개선사업은 다른 도와 차별되는 고유 사업으로, 작목별로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추진해온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을 통해 영농활동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영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여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유가공 유기농 제품생산 가공 설비 구축

‘2021년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생산비 절감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며,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실천을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사례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2020년 8월 ‘젖소 6차산업으로 유가공 유기농 제품 및 펫 푸드 시장 공략’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원유는 소에서 바로 짜낸 젖으로 살균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원유 지급률은 2001년 77%에서 2020년 48%로 감소했는데, 이는 국내 유통되는 우유의 반 이상이 수입산이라는 의미다. 원인은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 그래서 유업체에서는 가공용으로 값싼 수입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낙농업은

원유 생산비 증가와 원유 수취가격 동결로 낙농업 수익의 감소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유가공 시장의 포화로 인한 잉여 원유의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과 공략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동물복지 제품을 생산하는 1차 생산시설 인증으로 고품질 원유를 생산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적인 농가형 유가공 6차산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시범적으로 화순군의 김정석 젖소 사육농가에 실용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체면적 42,975㎡의 김정석 젖소 사육농가에는 요거트제조기, 자동 충전기, 치즈제조기, 분쇄기, 이송탱크, 저장고, 라벨기 등의 주요 시설 및 장비가 투입되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및 동물 복지 관련 인증 제품을 생산하려는 목적에서다.

● 젖소 유가공 유기농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투입기술 및 시설·장비

주요 투입기술	시설 및 장비 투입 내용	투입액(백만 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친환경 및 동물복지 관련 인증 제품생산	●요거트제조기, 자동충전기, 치즈제조기, 분쇄기, 이송탱크, 저장고, 라벨기	100	20	60	20



연간 매출액은 증가, 젖소 1두당 생산비는 절감

2021년 11월 12일, 화순군 소재 김정석 젖소 사육농가(온드리 목장)에서는 청년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젖소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 연사회’가 화순군농업기술센터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공동 개최로 열렸다. 이날 연사회에서 선보인 경영모델은 크게 축사와 방목장을 결합하여 조성한 동물복지 사육환경과 원유 충전기·요거트제조기 등을 도입해 고품질 유기농 요거트를 생산하는 원유 가공품 생산 시설로 구성되었다.

이 모델을 적용한 결과 2,409㎡ 축사면적에서 일반 젖소 사육두수는 120두이며, 착유우 50두 기준으로 우유 생산량은 493,080ℓ였다. 이를 유기 젖소 전환 시 사육두수는 25~40두 가능하며, 유기농 제품생산과 판매가 원활하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우유 생산량은 73,000~182,500ℓ로 예상되었다.



● 일반 젖소의 동물복지 유기 젖소 전환 시 사육두수 및 우유 생산량 변화(추정)

구분	일반 젖소	유기 젖소	대비(b/a)
사육두수(축사면적: 2,409㎡)	120두	25~40두	△79.2~△66.6
경산우(착유우)	50두(50두)	20~30두(12~25두)	
우유 생산량(ℓ)	493,080	73,000~182,500	△87.7~△62.9

또한, 유기 젖소 착유우 12두를 기준으로 수익성을 추정한 결과 우유 생산량 73,000ℓ, 총수입 365,000천 원, 경영비 254,108천 원, 소득 110,891천 원으로 일반 젖소 우유 생산판매 시보다 소득이 94% 증가하였고, 25두 기준일 때는 소득이 521,972천 원으로 약 8.1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젖소 원유 부가가치 향상 경영모델 도입 후 김정석 젖소 사육농가에서는 4종의 유기농 요거트와 1종의 그린 요거트 제품을 개발하여 현재 광주·전남지역 마트와 로컬푸드 판매장, 인터넷 등에서 판매 중이다. 이 밖에도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 젖소 부가가치 향상 모델 도입 전·후 수익성(추정)

(단위: 천 원 / 년)

구분	도입 전(A)	도입 후		증감률	
		2021년 착유우 12두(B)	향후 목표 착유우 25두(C)	B/A	C/A
우유 생산량(kg)	493,080	73,000	182,500	△85.2	△63.0
단가(원)	1,121	5,000*	5,000*	346.0	346.0
총수입	552,742	365,000	912,500	△34.0	65.1
경영비	495,593	254,108	390,707	△48.7	△21.2
소득	57,149	110,891	521,792	94.0	813.0
생산비	644,986	302,440	468,698	△53.1	△27.3
kg당 생산비(원)	1,308	4,143	2,568	216.7	96.3
노동 투입시간	10,950	2,190	3,650	△80.0	△66.7
제품판매	생유납품	유기농 요거트 4종, 그린 요거트 1종			

* 도입 후 단가는 가공재료비, 포장재비, 판매비용, 수수료, 홍보비 등을 제하고 농가가 수취한 가격임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농업경영 우수경영체 시리즈’는 11·12월호에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 젖소 산업의 선진지로 발돋움

우리나라 젖소 사육두수는 2016년 41만 7,937마리에서 2020년 40만 9,790마리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유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원유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지 않아 경영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젖소 사육농가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현재 전남에서는 451개 젖소 사육농가가 연평균 14만 3,000톤의 원유를 생산하여 1,5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전국 우유 생산량의 7% 수준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젖소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은 우유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젖소 사육농가에 원유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기농 유기공품의 생산 기술을 보급 및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낙농업의 6차산업화와 우유 소비 활성화 도모,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 조성에 따른 자연환경 보호에도 한 몫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동물복지 인증을 통한 유기농 유기농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젖소 경영모델을 여러 지역에 확산하여, 전남이 국내 최고의 유기농 제품 생산지는 물론 나아가 젖소 산업의 선진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곡식은 모두 한 톨로부터 시작된다

나주시 '한톨' 정진안 대표



청년창농타운은 청년을 비롯한 도민이 농업농촌과 연계한 2·3차 산업을 창업하고자 할 때 도와주는 곳으로,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실습형 공간입니다. 비즈니스로서 농산업 창업을 활성화시킬 청년창농타운 입주 회원을 소개합니다.

육종에 관심이 많아, 전남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에 진학해 육종가를 꿈꾸었다. 그러나 장미, 수국, 알스트로메리아를 육종하는 학교 실험실에서 일해보니 육종과 관련된 실험이나 연구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무렵 활동하게 된 학교 SMART영농창업 특성화사업단. 그곳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농업을 해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영농창업계획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20대의 정진안 대표는 청년농부가 되었다.



| 아버지(정두면 대표)와 함께



대학 졸업과 동시에 청년후계농으로

“6차산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관련해서 학교에 특강도 많아지던 시기였어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 SMART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에 들어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농창업 교육을 받고, 여러 농가를 견학하며 실제로 관심 있는 농가에서 실습도 해보았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만의 농업에 대한 계획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19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정진안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에 도전하였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정착 초기에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영농정착 지원금 외에 농지, 창업자금 및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도 함께 연계되어 지원한다. 졸업 전에 이미 ‘친환경 벼를 재배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라는 구체적인 영농창업 사업계획서와 ‘한톨’이라는 브랜드명까지 만들어두었던 정 대표이었기에 대상으로 무난히 선발되었다. “수도작 하시는 아버지를 도와드리다 보니, 아버지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벼로 영농창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험이 부족하여 지원사업 도전이 다소 무리라고 판단했지만, 언젠가는 농업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일단 부딪혀보자 결심했지요. 재배 관련해서는 아버지에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 대표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 관련 교육과 지원금, 후계농업인 대출을 받았다. 약 0.9ha의 논과 3가지 벼 품종, 이것이 영농창업의 시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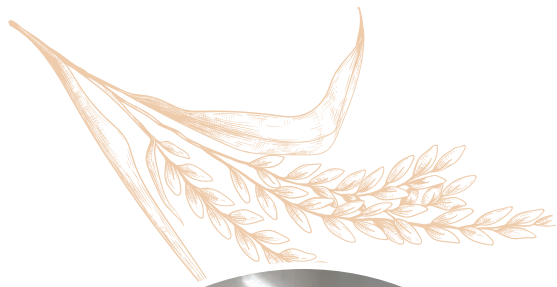


MZ세대와 청년창농타운의 만남

“2019년 0.9ha에서 4,741kg의 쌀을 수확했어요. 그로부터 4년 차인 올해는 약 1.2ha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에서 6,241kg 정도의 친환경 쌀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다행스럽게도 매출은 매년 조금씩 늘어났는데, 홍보와 판매 등 마케팅 관련해서는 여전히 가장 어렵습니다. 영농창업 계획을 세우면서 홍보는 블로그(blog.naver.com/jinan6)나 유튜브(농부일기_정농부) 등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판매는 스마트스토어로 진행할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저한테 부족한 부분이 많더군요.”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친구나 지인 등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먹게 해주고 싶어서 친환경농업을 선택한 정 대표였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다. MZ세대답게 부족하다거나 모르는 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해결하였다. 그러나 기쁨은 한계에 부딪혔고, 그럴 때마다 혼자라는 사실이 정 대표를 외롭게 하였다.

“시골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간다는 느낌에 지역의 농업 관련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청년창농타운을 알게 되었는데, 저한테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실 임대와 다양한 농업 관련 교육 제공, 게다가 영상 제작이나 광고, 홍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영농창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다른 농업인도 함께 입주하였기에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두 사람의 머리가 한 사람의 머리보다 낫다)”이라는 영어속담처럼 함께라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훨씬 큰 법이다. 청년창농타운은 4년 차 농부인 정 대표가 품어왔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나하나 풀어내 줄 든든한 조력자였다.



청년창농기술팀
김민수 · 최지현 지도사와 상담



목표는 친환경 쌀과 잡곡 유통 브랜드

“여러 가지 품종의 쌀을 300g, 500g 등 소포장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제품 패키지를 제작 중인데, 제작에 앞서 청년창농타운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청년창농타운에는 스탠딩 포장기, 진공 포장기, MAP 포장기(가스치환 포장기) 등 다양한 포장 관련 장비가 마련되어 있어서 미리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정 대표가 농사지은 친환경 쌀은 ‘한톨’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스마트스토어(smartstore.naver.com/perfectrice)에서 판매 중이다. 대학 재학 시절 만들었다는 이 브랜드명은 ‘한톨 한톨 농부가 정성스럽게 키운 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정 대표의 목표는 ‘한톨’이 친환경 쌀 및 잡곡 유통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다양한 품목과 제품이 필요하고, 홍보와 유통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하나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성취하고픈 정 대표이다.

“쌀 외에 보리와 조를 재배하고 있어요. 차츰 잡곡류를 늘려나갈 계획이고, 올해는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작물로 밤호박을 실험적으로 재배해 보았습니다. 밤호박의 경우 직거래로 완판되어서 내년부터는 규모를 늘릴 생각이에요. 10월 중순부터 추수할 예정인데, ‘한톨’의 친환경 쌀은 10월 말쯤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블로그와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소통도 활발히 할 생각이다. 아직은 농부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스스로 느끼기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과 경험이나 정보를 공유하고픈 마음에서다. 다행스러운 점은 비슷한 또래의 청년농부가 꽤 있어서 서로에게 위안이 된다는 것. 청년농부에서 유기농명인이 될 그날까지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한 톨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한다. ☺



‘라이브 전남농업방송’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기능성 농식품, 농작물 신품종 등 농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농업정보를 소개합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국립종자원

전라남도 대표 고품질 밥쌀용 ‘벼’ 품종



맛 좋은 쌀이 재배도 쉽다

2022년 7월 고품질 밥쌀용 벼 품종 ‘새청무’를 비롯하여 ‘조명1호’ 등을 개발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식량작물 연구소 신서호 연구사가 한국육종학회로부터 코레콘품종상을 받았다. 코레콘품종상은 한국육종학회의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한 공로가 큰 연구자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신서호 연구사는 전남을 대표하는 고품질 밥쌀용 벼 품종을 육성하고자 수만 번의 교배를 통한 선발과 도태를 반복한 끝에 2009년 ‘새청무’를 개발하였다. 당시 전남에서는 ‘새누리’가 약 50% 재배되었는데, 수확량이 많고 재배가 편한 품종이지만 다소 밥맛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청무’는 고려의 왕건이 칭찬했을 정도로 맛은 좋지만, 수량이 적고 병해충에 약한 단점이 있었다. 이 두 품종을 교배하여 개발된 ‘새청무’는 소비자가 원하는 밥맛, RPC(미곡처리장)의 도정특성 우수, 농민이 바라는 재배 안정성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품종이다. 그런 까닭에 2021년 전남 벼 재배면적의 약 44%인 6만 8,000ha를 차지할 정도로 전남의 대표 품종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올해 전남 10대 브랜드 쌀 가운데 대상을 포함한 6개 브랜드를 석권하였고, 그 품질을 인정받아 미국, 러시아 등 5개국에 쌀과 즉석밥을 수출하여 소비 진작에도 이바지하였다.

보급종 공급 이전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2019년부터 ‘전남 쌀 이미지 개선 및 명품화 사업’을 농협전남본부, 농협광주·전남RPC협의회, 전남쌀생산자협의회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추진하여 고품질의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새청무’를 원료곡으로 생산하는 시군과 농협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재배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관리를 거쳐 생산함으로써, 전남쌀이 쌀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앞으로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지역에 적합한 다종다양한 품종을 육성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기여할 방침이다.

새청무(전남6호)

- 교배조합: 청무 / 새누리
- 교배년도: 2009년 하계

새청무는 전남지역 브랜드 쌀 중 하나인 ‘왕건이 탐낸 쌀’로 유명한 청무 재배지역에 알맞은 내병성이면서 고품질 계통을 육성할 목적으로 2009년 하계에 개발된 품종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밥맛이 우수한 품종인 청무를 모본으로 하여 중만생·다수성 및 재배안정성이 뛰어난 새누리를 인공교배해 JNR84 교배번호를 부여하였다. 2010년 하계 F1 양성과 약배양을 실시하고, 2010~2011년 동계에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벼 세대단축온실에서 재분화식물체를 재배하여 우량개체 종자를 채종하였다. 이후 계통육종법에 따라 관리하고, 2013~2014년 생산력검정시험을 통해 중만생 및 미질 특성이 매우 양호한 JNR84 AC59를 선발하여 ‘전남6호’로 계통명을 부여하였다. 2014~2015년 전남 3개 지역에서 적응시험을 수행하였으며, 2016년 전남 3개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재배안정성이 확인되어 품종명을 ‘새청무’로 하여 2017년 품종보호출원 하였다.

주요특성

- 보통기 재배(5월 30일 이상) 시 출수기가 8월 15일로 중만생종이다.
- 간장은 70cm이고, 주당 이삭 수는 15개이다.
- 이삭 추출도가 양호하고 등숙이 빠르다.
- 현미천립중은 23.0g이고, 단원형의 현미 모양을 나타낸다.
- 보통기 보배재배 시 쌀의 삼백과 복백미가 없으며, 밥맛이 매우 뛰어나다.
- 벼한잎마름병 및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다.
- 수발아 및 쓰라짐에 강하다.



새청무

조명1호(전남3호)

- 교배조합: 고시히카리 / 온누리
- 교배년도: 2008년 하계

조명1호는 전남지역 벼 조기재배 및 2모작 지역에 알맞은 조생 고품질 계통을 육성할 목적으로 2008년 하계에 개발된 품종이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밥맛이 우수한 품종 고시히카리를 모본으로 하여 다수성 및 밥맛이 좋은 온누리를 인공교배해 JNR1 교배번호를 부여하였다. 2008~2009년 동계에 F1 식물체에서 약배양을 실시하였다. 이후 계통육종법에 따라 관리하여 2011년 생산력 검정시험을 통해 조생 및 미질 특성이 가장 양호한 JNR1 AC28을 선발하여 ‘전남3호’로 계통명을 부여하였다. 2015년 12월 벼 직무 육성 신품종 선정 위원회에 품종명을 ‘조명1호’로 하여 심의를 마치고, 2016년 품종보호출원 하였다. 적응지역으로는 전남지역 벼 조기재배 및 2모작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다. ☞

주요특성

- 조기 재배(5월 10일 이상) 시 출수기가 7월 24일로 조생종이다.
- 간장은 70cm이고, 주당 이삭 수는 15개이다.
- 이삭 추출도가 양호하고 등숙이 빠르다.
- 현미천립중이 20.5g으로 다소 작고, 중원형의 현미 모양을 나타낸다.
- 조기재배 시 쌀의 삼백과 복백미가 없으며, 밥맛이 매우 뛰어나다.
- 벼한잎마름병 및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다.
- 조생종에서 문제가 되는 수발아에 매우 강하다.



조명1호

▶ 채소 병해충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영농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병해충, 농약, 작목 정보 등 농작물 병해충 관련 정보를 도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작물에 방제될 수 있도록 병해충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배추 무름병

피해와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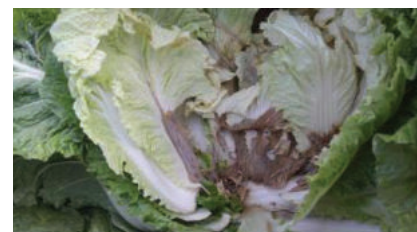
- 결구 생기기 전 발병되면 포기 전체 부패, 결구 되지 않음
- 결구 된 배추 표면은 담갈색, 속잎은 변색되지 않고 물러 썩음
- 잎이나 잎자루에 물이 젖은 형태의 병반
- 차츰 무르게 되며, 심하면 악취가 나는 세균병

발생환경

- 병든 식물조직의 잔해물이나 잡초표면 또는 흙 속에서 월동
- 월동 병원균이 흙먼지와 함께 바람을 타고 이동하거나 물에 섞여 전파 또는 농작업, 해충 등에 의한 상처로 침입

방제대책

- 벼과나 콩과 작물로 돌려짓기하는 것이 좋고 병든 식물조직은 빨리 제거, 전염원을 줄여야 효과적
- 병원균은 건조에 약하기 때문에 배수와 통풍이 잘되는 밭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음
- 동수화제, 스트렙토마이신, 옥소리닉 수화제를 8엽기~결구기까지 살포하면 효과가 있음
- 동수화제 뿌려준 배추는 약해를 받기 쉬우므로 탄산칼슘제 사용



무름 증상

배추·갯 뿌리혹병

피해와 진단

- 증상: 잎이 시들 → 진전되면 포기 전체가 푸른 상태로 시들
- 진단: 뿌리가 흑 모양으로 비대, 흑 부위 표면은 거칠게 균열
- 생육 후기에는 대부분 물러 썩음

발생환경

- 빗물, 관개수, 바람, 농기구 등에 의하여 전파될 수 있음
- 80% 이상의 과습한 토양에서 발병하기 쉬움
- 토양산도가 7.2 이상, 토양수분이 40% 이하인 포장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 발병에 알맞은 온도는 20~25°C, 12시간 이상 일조가 지속될 때 많이 발생

방제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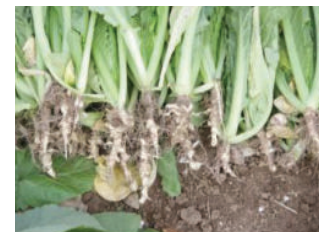
- 토양 전염하므로 당귀-메밀-황기 등으로 돌려짓기하거나 저항성 품종을 재배
- 병 발생이 심한 포장은 정식 10일 전에 석회질소 61kg/10a
- 정식 7일 전 후루설파마이드 20kg/10a를 토양에 투입
- 길항미생물입제 40kg/10a를 정식 전에 토양혼화, 정식 7일 전 액제 4배액을 유묘관주, 10일 후에 250배액을 관주



배추 어린묘 뿌리혹



배추 성묘 뿌리혹



갯 뿌리혹



적갯 뿌리혹

배추·갯 흰녹가루병

피해와 진단

- 잎 뒷면: 흰색의 작은 병반 형성 → 점차 진전되면 표피가 갈라짐 → 하얀 포자덩어리 형성
- 잎 앞면: 뚜렷하지 않은 황갈색 병반 형성

발생환경

- 1차 전염원: 병든 식물체의 조직 속에서 난포자 또는 균사 형태로 월동
- 난포자는 피해식물체와 함께 전파, 유주자는 빗물에 의해 전파
- 분생포자 발아온도는 0~25°C, 생육적온은 10°C 내외

방제대책

- 병든 식물체는 빠른 시기에 제거, 매몰 또는 소각
- 상습 발생지는 배추과 이외의 작물로 돌려짓기
- 밀식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도록 관리
- 등록약제(갯): 쿠퍼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 메탈락살-엠 액제, 쿠퍼옥시클로라이드-가스-가마이신 수화제, 보르도혼합액 입상 수화제
- 병 발생 초기에 전용약제로 예방 위주 사용



배추 흰색 포자덩어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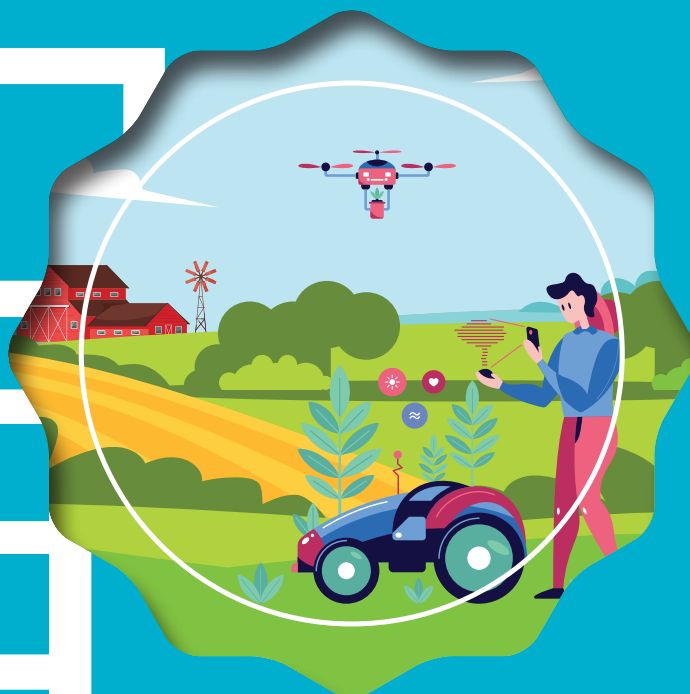


갯 흰색 반점

明智的見 명지적견

'밝은 지혜와 틀림없이 확실한 견해'라는 뜻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지혜와 소신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



지:

삶을 바꾸는 농업

체인지—體人智—CHANGE

Index

50	여 행 N 맛	남도 답사 일번지, 강진(康津) 제철이라 더 맛있는, 가을 벌미 조리법
56	귀 농 · 귀 촌 길 잡 이	곡성군 '석진농장' 김태현 대표
58	글 로 벌 팜	미국의 유기농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
62	톡·Talk, 해외시장 소식	인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식 트렌드
64	마 을 기 업 탐 방	진도군 '산들바람작목반 영농조합법인'
66	농 업 인 안 전 3 6 5	고령 농업인의 작업 관리
70	이 슈 키 워 드	고향사랑기부제·소비기한 표시제
72	농 업 인 교 육	11·12월 교육 일정
74	J A R E S 뉴 스	
78	독 자 마 당	

남도 답사 일번지

康津

강진

가서 보면 알 수 있다.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왜 남도 답사 일번지라고 했는지. 곳곳에 문화유산이 지천이고 자연풍광은 수려하기 그지없다.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넘쳐난다. 공기는 맑고 바다는 청정하다. 그냥 숨만 쉬어도 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변치 않는 남도 답사 일번지. 편안할 강(康)에 나루 진(津), 강진(康津)이다.

글·사진 | 함종만(소설가)

숨만 쉬어도 건강해지는 땅

남도 답사 일번지, 강진이 가까워질 무렵 고민거리가 생겼다. 수려한 자연풍광이며 넘치는 문화유산, 그렇게 많은 볼거리 중에 무엇부터 보아야 하나? 어디를 먼저 들러야 하나? 행복한 고민이었다. 오래 고민하지는 않았다. 탁 트인 바다부터 보기로 했다. 이름부터 그렇지 않은가. 편안하고 건강한 나루, 강진. 그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강진을 풍요로운 고장으로 만들어주었던 바다, 강진만 생태공원이었다. 해안 습지를 활용한 생태공원으로는 순천만이 유명하지만, 보다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는 건강한 습지 공원은 강진만이라고 한다. 탐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강진만 생태공원은 남해안에 산재한 11개 하구 평균보다 2배 많은 1131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강진군청의 말이다.

약 15만 평인 순천만 갈대밭보다 넓은 약 20만 평에 달하는 갈대 군락지가 있고, 청정 갯벌 23km²가 펼쳐진 광활한 습지라고도 한다. 과연 그랬다. 작은 어선 모양으로 조성한 입구 전망대에 오르니 참으로 광활한 습지가 눈과 가슴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설치 미술인 듯 갈대군락지 사이로 이어지는 산책로에 내려서자 가슴지느러미를 이용해 엉금엉금 갯벌 위를 기어 다니는 짱뚱어들이 반겼다. 짱뚱어를 보니 여기가 얼마나 청정한 갯벌인가 실감되었다.

산책로를 걷다 보니, 탐진강 건너편 독 위에 한 쌍의 큰고니 조형물이 눈길을 끌었다. 이곳이 백조라고 불리는 큰고니 2,500마리 정도가 월동을 위해 찾아드는 집단서식지라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다. 철이 달라 큰고니 실물을 못 보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좋다. 드넓은 갈대군락지 사이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근처에 다른 볼거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가까운 곳에 유홍준 교수가 극찬했던 문화유산이 즐비하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와 기거했던 다산초당, 다산과 교류하며 차와 학문을 논한 혜장선사가 수행했던 백련사가 지척이다. 생태공원을 나와 다산초당보다 가까운 백련사부터 찾았다. 생각보다 큰절이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웅전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 지붕으로 크기도 컸으며, 앞면 2개의 주두에 용두를 장식하여 단청과 함께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주었다. 대웅전 앞에 서니, 강진만이 눈앞인 듯 다가섰다.



맛이 일품인
다산명가
갈치조림

여행 수첩

남해고속도로 강진 IC에서 10여 분 거리에 강진만 생태공원이 있다. 생태공원 근처에 백련사와 다산초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북쪽 월출산 자락에 백운동 원림과 무위사가 있다. 다산초당 올라가는 길에 식당이 여럿 보인다. 맨 위쪽 다산명가 식당 (061-434-5252)에서 점심 메뉴로 생선구이와 조림을 파는데, 둘 다 맛이 뛰어나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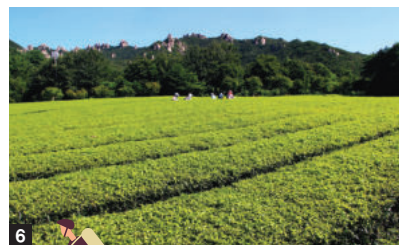
3



4



5



6

- 1 갈대군락지 사이로 조성된 산책로와 쉼터
- 2 호남의 3대 정원 중 하나인 백운동 원림
- 3 백운동 원림 정자에서 바라본 백운동 제1경인 옥판봉
- 4 중학교 교과서에 소개되었던 무위사 극락보전
- 5 육지와 출렁다리로 연결된 가우도
- 6 백운동 원림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차밭



6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집필한 다산초당

생생하게 남아있는 대가의 체취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으로 이어지는 900여 미터의 산책길이 있다. 다산 선생께서 적적할 때면 혜장선사를 만나 차담을 나누기 위해 걸었다는 길이다. 꼭 한번 걷고 싶었던 길이기도 했다.

완만한 오솔길과 다소 가파른 오르막, 내리막이 걷는 맛을 선사하는 산책로를 따라 30분 정도 걸어가니 다산초당이다. 강진 유배 18년 중 10여 년을 머물면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흙흙신서> 등 600여 권에 달하는 조선조 후기 실학을 집대성했던 곳. 본래 초가집이었으나 1957년 강진 다산유적보존회에서 목조 와가로 중건했다.

다산초당 외에 동암, 서암, 천일각 등의 건물이 있고 다산 4경이라 불리는 정석, 약천, 다조, 연지석기산 등의 유적도 보인다. 현판에 판각된 '다산초당'이란 글씨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친필을 집자해서 모각한 것이라고 한다.

다산초당을 내려와 차량으로 10여 분 거리에 담양의 소쇄원, 보길도의 부용동 정원과 더불어 호남의 3대 정원으로 불리는 '백운동 원림'이 있다. 원림이란 집터에 딸린 숲을 의미하는데,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산 정약용이 이곳의 경치를 잊을 수 없어 제자 초의에게 '백운동도'를 그리게 했다고 한다.

제1경 옥판봉을 비롯해 동백나무 오솔길, 100그루의 홍매, 취미선방, 모란 화단, 집 앞의 푸른 절벽, 소나무를 심은 밭등, 정선대, 시냇가의 단풍나무,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보낼 수 있다는 유상곡수, 폭포, 대나무밭 등 12가지 뛰어난 경관을 그린 그림에 13수의 시를 지어 붙여 책을 내었는데, 바로 <백운첩>이다. 백운동 원림 가까운 곳에 유홍준 교수가 남도 답사 일번지에서 언급했던 월출산 무위사가 있다. 유 교수가 책에서 소개했던 무위사 극락보전 부분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월출산과 남도의 봄'으로 수록되기도 했다.

월출산 자락을 병풍처럼 두른 채 고즈넉하게 자리한 무위사는 강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다. 무위(無爲)라는 단어가 본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을 생각하면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하다.

무위사 구경을 마쳤으면 강진만의 8개 섬 가운데 유일한 유인도인 가우도로 향할 일이다.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출렁다리가 양쪽으로 연결되어 걸어서 섬에 들어갈 수 있다. 섬 정상에는 청자타워가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 해상을 날 수 있는 쥘트랙 체험이 여행에 짜릿한 정취를 더해준다. ☺

귀농,
처음부터 무리는
절대 금물!

곡성군 '석진농장' 김태현 대표

고향은 서울이지만, 전라남도 영광 출신인 부인의 권유로 귀촌을 결심하였다. 귀촌할 지역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곡성에 오게 되었고, 반겨주는 마을 어른들이 인상 깊어 지난 2010년 곡성에 정착하였다. 사실 귀촌 초기에는 농사지를 생각이 없어서 몇 년간 다른 일을 하다가 2014년 옥수수 재배에 나섰고, 지역 특화작물인 멜론을 추천받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멜론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멜론 재배의 최적으로 평가받는 곡성은 전라남도 최대 주산지이기도 하다. 또한, 비교적 고소득 작물로 꼽히기에 농사에는 문외한이었지만 주변 농가의 도움과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과감히 도전하였다. 다행인 것은 지역에 조금 늦었지만 이용 가능한 하우스 시설이 많아 땅 등을 임대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많지 않았다. 500㎡(약 150평) 하우스 4동을 임대하면서 시작된 멜론과의 인연. 재배 후 첫 매출이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자 하우스를 16동으로 늘렸다. 동수를 늘리면 그만큼 매출도 오를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에서다. 그러나 간파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관리'였다. 노하우도 부족하고, 혼자 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없는데 너무 무리한 것이다. 엉망인 상황은 결국 빛으로 이어졌다. 이를 교훈 삼아 지금은 혼자 관리할 수 있는 1,000㎡(약 300평) 하우스 4동에서 주 작물인 멜론을 비롯하여 딸기, 감자, 호박 등을 재배하고 있다.

“멜론은 작기(作期)가 짧아서 90일 정도면 수확할 수 있거든요. 또 혼자서도 관리가 가능하고, 수익도 좋은 편이어서 귀농한 분들에게 제격인 것 같습니다. 단, 저처럼 처음부터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요. 젊은 귀농인인 만큼 곡성군농업기술센터의 교육과 시험생산 실증연구 등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쌓인 저만의 노하우로 석진농장을 지역을 대표하는 멜론 농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새로운 인생 설계에 도전한 귀농·귀촌인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성공 사례와 시·군별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을 알아봅니다.

출처 | 전라남도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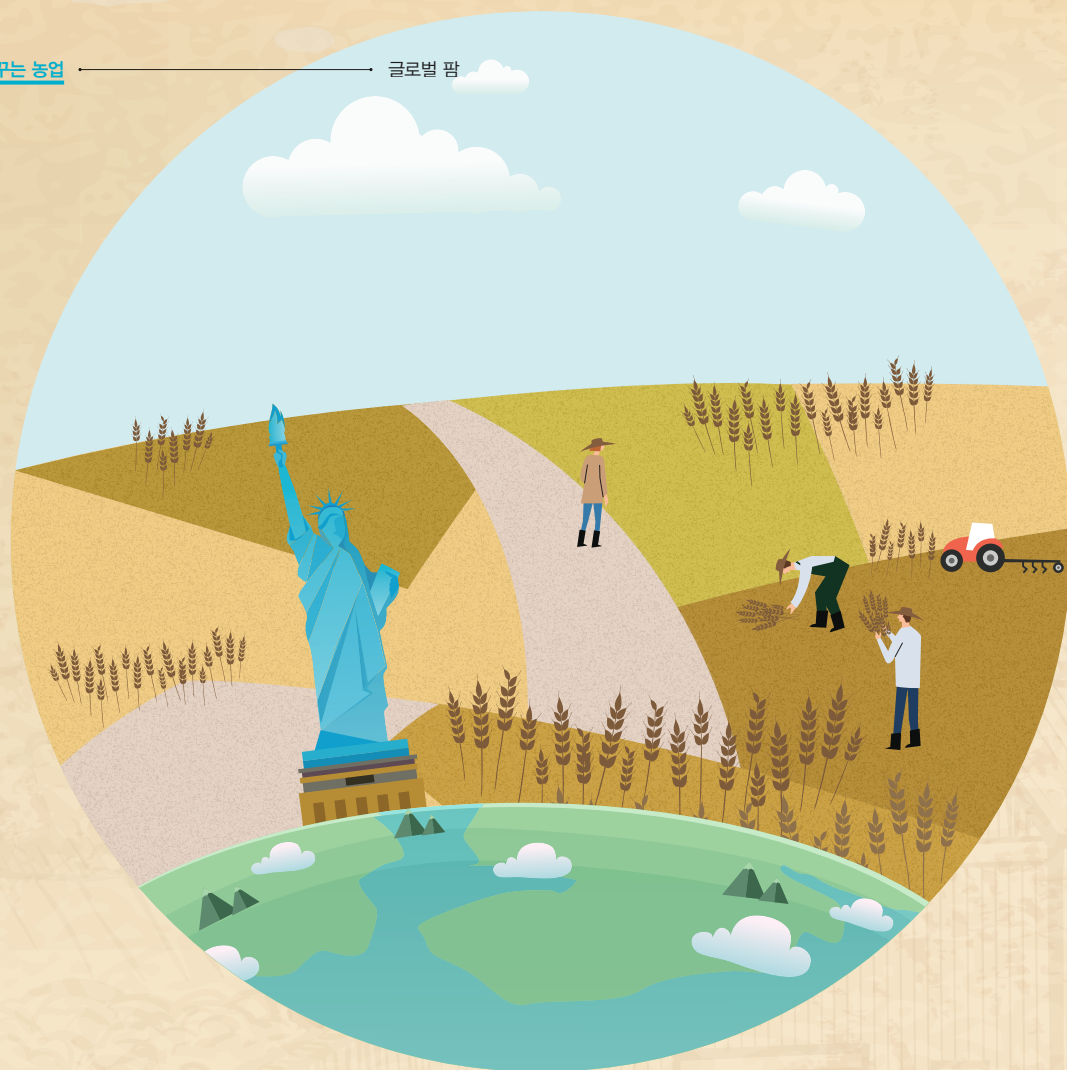
*행정조직 1읍, 10면

*면적 547.47km²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 지원대상: 관내 농업인 및 귀농·귀촌 예정 ◎ 사업내용 • 농업기술교육(귀농·귀촌 이해, 품목별 재배기술, 농업기계 활용 등) • 농촌생활적응기술교육(전통문화 등 생활과학기술) ◎ 지원조건: 교육비 무료(자부담 없음)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지원대상 • 연수생: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선도농가: 지역에서 신망 있고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선도농업인 영농현장에서 실습교육을 통한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기법 등 연수 ◎ 지원조건 • 사업량: 8개소, 48백만 원(연수생 8명, 선도농가 8명, 자부담 없음) • 연수생 80만 원/월, 선도농가 40만 원/월, 연수기간별 개소당 사업비 차등 지원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마친 자(우선 선정) • 사업 시작 연도 기준(2022.1.1.) 귀농한 지 5년 이내 농업인 ◎ 사업내용: 신규농업인의 창업역량 강화(전문가 멘토링) 및 소득기반 지원(예비창업실행비) ◎ 지원조건 • 창업교육: 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 실시, 사업대상자 의무교육(사업추진방범) • 컨설팅 지원: 사업비 2.5백만 원/사업아이템 자료 등 컨설팅 3회 이상 추진 • 창업 지원: 사업비 10백만 원/창업의무교육 수료 후 컨설팅 3회 이상 진행자(창업지원금은 경상보조로만 집행, 자본보조는 집행 불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65세 이하(주택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농촌지역 전입 5년 이하,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수자 ◎ 사업내용: 농업창업(농지 구입, 축사 구입 및 신축, 농기계 구입 등), 주택 구입 및 신축 ◎ 지원조건: 개소당 농업창업 3억 원, 주택 7,500만 원(융자 100%)
신규농업인 인력육성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65세 이하, 전입 5년 이하, 농지 구입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자 ◎ 사업내용: 비닐하우스 설치 등 농업시설, 농지·농기계 구입 등 농업기반시설 조성 비용 지원 ◎ 지원조건: 20개소, 개소당 600만 원(보조 50%)
귀농인의 집 운영	◎ 지원대상: 곡성군 전입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 사업내용: 임시 거주공간 제공(9개소 12세대) ◎ 지원조건: 거주 가능기간 최저 1개월~최대 6개월, 사용료 7~13만 원/월(실비 별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귀농·귀촌인 요건 충족하며 전입 5년 이내인 세대주 ◎ 사업내용: 구입 및 장기임차 농가주택 수리비 ◎ 지원조건: 30개소, 개소당 500만 원(보조 100%)
농촌주택 개량사업	◎ 지원대상: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으로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 처분이 가능한 자 ◎ 사업내용: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융자) ◎ 지원조건: 신축(개축, 재축 포함) 2억 원 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억 원 이내

석진농장_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대평리 1140-5 문의 010-6220-3286

문의: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22)



미국의 유기농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

글 |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최동근 사무국장

미국의 유기식품은 1970년대까지는 주로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 위주로 유지되어오다가 1980년대에 들어 환경 문제가 본격화되고,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1979년 캘리포니아 등 몇 개 주의 유기식품에 관한 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0년 미 의회에서 '유기식품생산법(Organic Food Production Act, OFPA)'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유기식품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997년 시행규칙인 '국가유기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NOP)'에 대한 초안을 마련, 몇 차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200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 유기농업 현황

미국은 2020년 16,476명의 생산자가 232만 7,000ha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유기농 재배 면적은 2000년에 비해 3배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전체 재배면적의 0.6%에 불과하다. 생산자는 2000년 6,592명에서 연평균 4.9%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39만 625ha(18%)로 유기농을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고, 인증농장도 3,012개로 가장 많다.

유기농 소매 판매액은 2000년 80억 유로에서 2020년 495억 유로까지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 10.1%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팬데믹 영향으로 많은 소비자가 가족에게 먹일 '더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으로 유기농식품을 선택한 결과 미국 전체 식품시장에서 유기농 보급률은 5.8%에 도달하고 있고, 전 세계 유기농시장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미국의 유기농업 현황 추이

년도	재배면적(천ha)	생산자(명)	판매액(백만 유로)
2000	719	6,592	8,000
2005	1,641	8,493	10,658
2010	1,769	13,187	17,319
2015	2,029	14,871	35,156
2020	2,327	16,476	49,456

*자료: FBI and IFOAM(2002, 2007, 2012, 2017, 2022),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 EMERGING TRENDS.

유기식품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39%)이고, 다음으로 유제품 및 달걀(13%), 포장 · 조리 식품(12%), 음료(12%), 빵 · 곡물(10%) 순이다. 재래식 및 천연식품 슈퍼마켓과 체인점을 통해 대부분 판매(88%)되고 있다. 나머지는 농부시장, 지역사회 지원 농업(CSA), 기타 소비자 직거래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유기농 제도 및 지원 정책

미국의 유기농업 지원 정책은 농무부(USDA)가 주관하여 유기농 제도 운영, 기술 교육 및 재정지원 등 다양하게 유기농 농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무부의 농업마케팅서비스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은 '국가 유기 프로그램(NOP)'을 농민 등 15명의 공공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국가 유기 규격 위원회(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NOSB: 유기제품 생산, 취급 및 가공과 관련된 문제 논의 및 권고 기능)를 설치하여 자문받으며 운영하고 있다.

유기식품 인증은 미국 정부에서 승인한 73개(미국 내 43개, 외국 30개)의 인증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기식품을 '100% 유기', '유기(유기성분 95% 이상)', '유기성분 함유(유기성분 70% 이상~95% 미만)', '유기성분 70% 미만' 등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미국 유기농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는 것은 '100% 유기'를 포함하여 유기성분 95% 이상의 유기식품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연간 유기농 매출액이 5,000달러 미만인 유기농 농가는 인증받지 않고 제품 판매가 가능한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 미국 유기농 인증마크



100% 유기



유기



유기농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유기농 인증비용 분담(Certification Cost Share Program, OCCSP)' 정책이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생산자와 취급업자에게 인증비용의 일부를 추후 환급해주는 것인데, 최대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증비용의 최대 50%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유기농업 지원 정책은 대부분 환경보전 활동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들의 환경개선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환경보전 노력을 기반으로 경영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유기농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Organic Environment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을 통해 유기농 농민들이 토양 물(지하수·지표수), 경작지의 환경조건을 보전 개선하면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전관리책무프로그램(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은 방목 조건 개선, 작물 회복력 제고, 야생동물 서식지 조성 등 환경보전을 위한 추가 활동을 계약한 농장에 그 비용의 일부를 연간 직접지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토양보전을 위한 정책으로 침식 가능성이 크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농지를 10~15년 휴경하는 경우 나무나 풀과 같은 피복 식물을 심도록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전유보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이 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관행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술적 및 재정 지원을 하는 정책도 마련되어 있다. 유기농으로 전환하려는 농가에 멘토 역할을 담당하도록 비영리 조직(6개 지역)에게 5년에 걸쳐 최대 1억 달러를 지원하는 '유기농 파트너십프로그램(The Transition to Organic Partnership Program, TOPP)', 은퇴한 또는 은퇴하려는 토지 소유자와 경영자에게 지원하고 신규농업인과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자 그룹에게 그 땅을 팔거나 임대하는 조건으로 2년간의 추가적인 임대료를 지원하는 '전환 인센티브프로그램(Transition Incentive Program, TIP)'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유기농법의 촉진을 원하는 농민에게 용자를 제공하는 '보전융자프로그램(Conservation Loan Program, CLP)'이 있다. 그 외에도 이상기후에 따른 유기농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완화해주는 작물보험, 연구조사, 마케팅 등 지원 가능한 정책들이 다양하다.

시사점

미국의 유기농업 지원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소규모 농민들이 인증받지 않더라도 유기제품을 표시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제를 개선하고, 미국의 NOSB와 같은 민간 자문기구(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복원)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지원사업을 국가 지원사업으로 개선하여 친환경농업에 농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도 유기 인증 농가들의 토양 유실 방지, 토질·수질 개선, 에너지 보전 등의 환경개선 활동에 직불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유기 농가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관행농업인들이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동참토록 유기농 농부 멘토링, 유기농 기술 지원 및 교육, 농업환경 개선프로그램 등의 정책이 도입 및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상기후로 친환경농업 농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미국처럼 보험작물대상에 친환경농업을 도입하여 지원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농무부 장관(Tom Vilsack)이 유기농업에 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은 1,037억 원에 불과하다. 친환경농업은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므로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 개선 및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이슈와 전 세계 128개 해외무역관이 수집한 시장정보 중에서 전라남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해외시장뉴스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전합니다.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인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식 트렌드

글 | 인도 뭄바이무역관 유동길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K-Pop, K-Food로 알려진 K-Culture이다. 최신 음악을 선도하는 K-Pop의 거대한 팔로워(Follower)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인기 있는 한국 음식까지 한국 문화는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치를 넘어 다양한 한국 음식으로 확대

한류의 영향은 김치를 넘어 다양한 K-Food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도시 곳곳 한식당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은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인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K-Pop, 한국 TV 쇼 및 영화와 같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증가된 관심이 한국 요리의 성장에 기여한 것이 분명하다. 외식할 때 흥미롭고 새로운 요리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최신 유행의 맛을 찾고 있는데, 한식은 글로벌 푸드 업계에서 새로운 아시아의 맛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요리도 인도인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되고 있으며 배달 음식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김치카레, 김치파코라(Kimchi Pakora, 김치와 채소 등을 섞은 튀김), 차나달티키(Chana Dal Tikki, 감자전의 변형) 등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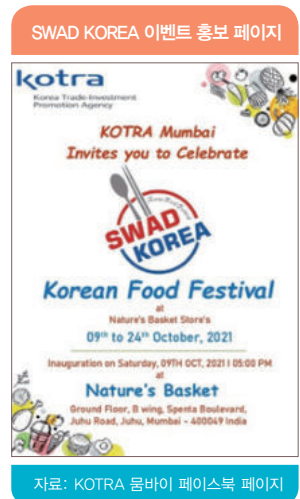
몇 가지 인기 있는 한국 음식 트렌드

K-Drama에서 영감을 받은 한국식 프라이드치킨과 양념치킨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별미 중 하나이다. 프라이드치킨의 경우 간장, 마늘, 꿀 등의 소스가 함께 제공되어 다양한 맛을 원하는 인도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오믈렛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식감의 계란말이는 K-Drama ‘꽃보다 남자’의 영향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한국식 바비큐와 짬을 이루어 사랑받고 있다. 한식의 전통 디저트 레시피로는

떡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이다. 이 떡 레시피는 끈적한 질감에 달콤한 팔로로 만든 페이스트로 채워져 있어 인도인에게 익숙한 식감이면서도 독특한 맛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열풍은 인도 음식 블로거들이 자신의 블로그와 유튜브에 수많은 한국 요리법을 게시하여 홍보할 정도로 높아져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식 인지도 제고를 위한 SWAD KOREA 축제 진행

KOTRA 뭄바이무역관은 인도 최고급 식품 유통업체인 RP-Sanjiv Goenka 그룹에 속한 네이처스 바스켓(Nature's Basket)과 2021년 10월 9일부터 24일까지 한국 음식 축제인 스와드 코리아(SWAD KOREA, SWAD는 힌디어로 '맛을 의미)를 진행하였다. 행사는 뭄바이, 뉴델리, 푸네, 벵갈루루, 콜카타 등 인도 전 지역 20개 매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스와드 코리아는 인도 전역의 K-Food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식과 인도 요리를 결합한 이벤트를 열었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한식 애호가이자 셰프인 Nikhil Bendre는 10월 9일 네이처스 바스켓의 Juhu 매장에서 한식과 인도식 퓨전 요리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네이처스 바스켓은 유명 음식블로거들을 초청해 축제에 참여시켰고, 매장에서 직접 쇼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와드 코리아 이벤트 기간에 한국 식품 판매는 566% 성장했으며 주문 건수도 25% 증가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식 퓨전 요리를 홍보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한국 식품에 대한 비디오도 선보였다.



자료: KOTRA 뭄바이 페이스북 페이지

인도 가정을 위한 한국 요리

한국 음식이 세계적인 요리 트렌드로 발전함에 따라 주인도 한국관광공사(KTO India)는 최근 '인도 가정을 위한 한국 요리'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인기 있는 한식을 위한 10가지 레시피를 통해 다양한 한국의 맛을 소개하고 있으며, 조리법은 인도 가정을 위해 특별히 선별되었다. 재료와 준비 단계는 인도 가정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으며, 각 요리에 대한 정보 및 팁뿐만 아니라 한국 요리, 전형적인 한국 식탁 세팅 및 기본적인 한국 식사 예절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있다.

많은 인도인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Your Food Lab'의 유명한 인도 셰프 Sanjyot Keer와 함께 K-Food와 인도 음식 간의 콜라보레이션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점

많은 소비자가 한국 제품을 찾기 위해 아마존과 플립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 제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소매업체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Korikart(www.korikart.com)는 한국 화장품, 식품, 주방용품, 전자제품과 의류를 판매하는 인도의 온라인 유통업체이자 마켓플레이스로, 소비자에게 '카트 속의 한국'을 약속하며 한국 식자재 및 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는 K-Food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Shopee와 같은 개인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포함하여 한국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온라인 전용 사이트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경우에는 중소 식품 수출업체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물류 및 홍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인도에서의 K-Food 인기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건강을 우선시하면서도 색다른 맛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 음식의 특징이 인도인들에게 더욱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Euromonitor의 분석가 Shreya Sharma에 따르면 K-Pop, K-Drama 및 K-Culture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전망했으며, 2022년 이후에도 한국 식품 제조업체와 식품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장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자료: Euromonitor, news articles from The Hindu, Times of India 및 KOTRA 뭄바이무역관 자료 종합

현지화된 한국 요리

김치와 카레

김치파코라

차나달티키

자료: times of india recipes



안전한 식탁의 동반자를 꿈꾸는

정직한 사람들

진도군

‘산들바람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뜻하는 ‘마을기업’.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전라남도 마을기업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전국에서 ‘우수 마을기업’ 16개소와 ‘모두에(愛) 마을기업’ 9개소를 선정·발표하였다. 전라남도는 우수 마을기업에 2개소, 모두에 마을기업에 1개소가 선정되어 국내 대표 마을기업 전국 최다 배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 모두에 마을기업에 선정된 곳은 진도군 ‘산들바람작목반 영농조합법인(대표 고우판)’으로, 모두에 마을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지 2년 이상인 기업 중 성장 기반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간판 마을기업’을 의미한다.

Q ‘모두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진도군 ‘산들바람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진도군 친환경농업 4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기업으로, 청정 진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진도군 마을기업 1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2015년에는 유기농 전나무를 미국에 수출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유기농 인증, 2019년 6차산업 인증, 2020년 비건 인증을 취득하는 등 소비자의 식탁에 ‘고향의 안전한 밥상’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영농조합법인 이름을 ‘산들바람작목반’이라고 지으신 까닭이 있으신가요?

진도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진도가 섬이라서 흔히 바다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진도는 산과 들, 그리고 섬의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산들바람’이라고 정했습니다.

Q 올해 ‘모두에 마을기업’ 선정에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지난 11년간 마을기업의 자립을 위해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는데, 특히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직원분들의 격려와 호응이 ‘모두에 마을기업’ 선정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도군청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관계자 여러분이 제공해주신 다양한 지원사업과 관련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Q 향후 ‘모두에 마을기업’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많은 친환경농업인과 함께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Q ‘산들바람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진도군’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진돗개, 가수 송가인, 명량대첩뿐만 아니라 ‘진도군의 건강한 친환경농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으로서 늘 한결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진도군의 친환경농산물과 특산품을 통해 소비자가 먼저, ‘진도군에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을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들바람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은

2011년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역농산물 도소매 판매를 시작하여, 현재 동남아시아 16개국으로 수출하는 등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로 지역 농업인의 수익 창출에 힘을 보태는 건실한 기업이다. 잡곡과 건나물, 가공식품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를 통해 ‘진도에서 전해주는 집밥’을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산들바람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제품은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www.sdbaram.com)에서 확인 및 구매가 가능하다.

주소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진도대로 8196

고객만족센터 061-542-4542

건강하고 안전하게, 고령 농업인의 작업 관리

2021년 기준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약 67.2세입니다.
또한, 농가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 고령화율인 17.1%보다 무려 2.7배가량 높은 46.8%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업 인력의 상당수를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도움이 되고자 고령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농작업 사고와 안전한 작업 방법을 살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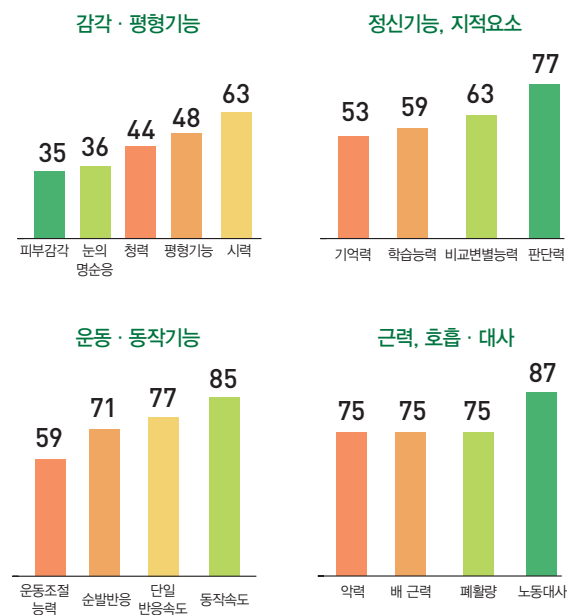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365'

고령자의 신체 변화 특징

20대와 비교하면 50대의 감각·평형기능, 기억력, 동작조절능력 등은 현저히 저하된다.

◎ 고령 농업인이 주의할 점

- 균형능력이 저하되므로 미끄러짐, 추락 주의
- 심장운동력, 폐활량 저하로 과도한 활동 시 쉽게 지침
- 뼈의 강도가 약해지고 질병 회복력이 떨어지므로 사고, 질병 예방 더욱 필요
- 정보판단, 반응시간 오래 걸리므로 빠르고 복잡한 작업 시 주의
- 시력, 빛에 대한 순응력이 낮아지므로 어두운 곳, 야간운전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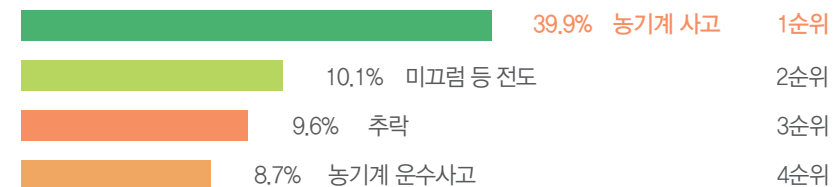


※ 20~24세 청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55~59세의 기능점수임
(자료: 한국체육과학연구원, 1995/1996)

고령 농업인과 농작업 사고

고령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농작업 사고는 농기계 사고와 전도·추락사고이다.

〈주된 농작업 사고 유형〉



자료: 농협안전공제 보상 원자료 분석, 2004

◎ 농기계 안전 사용 방법

- 농기계 사고는 고령 농업인 농작업 사고 원인 1순위
- 고령자는 시력, 청력, 주의집중력, 복합적인 작업수행 능력 등의 감소로 농기계 작업 시 위험성이 높음.
또한, 신속한 판단력·반응력·순발력의 저하로 위험 상황 시 대처능력이 떨어짐

방법 1.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 올바른 취급방법을 숙지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한다.
- 작업복장으로 기계에 밀려 들어갈 수 있는 헐렁한 옷, 장갑이나 소매가 긴 옷 등을 피한다.
- 장비 점검 시 반드시 엔진을 끄고 한다.
- 기계는 항상 안전한 상태에 놓고 정비 점검을 실시한다.
- 논두렁을 넘을 때는 저속상태에서 직각으로 직진한다.

방법 2. 피로하지 않도록 작업, 비상연락 가능하게

- 농기계 작업은 진동·소음이 많아 쉽게 피로해지며 집중력이 저하되므로 장시간 운전을 피하고 바쁘더라도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연속 최대 운전시간: 2시간 이내

- 작업을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다.
- 혼자서 작업할 경우 사고 발견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급적 혼자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농기계 작업 중 사고가 많은 시간대: 오전 9~11시, 오후 1~3시 (농업공학연구소, 2003)

방법 3. 저녁·야간 도로 운전 시 특히 주의

- 야광 반사판을 반드시 부착하고 방향지시등·비상등 작동을 수시로 점검한다.
- 농로와 도로 출입 시 일반 차량보다 저속임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는다.
- 고령자는 어두운 곳에서의 시력·시야가 감소하므로 저녁이나 야간운전 시 특히 주의한다.

※ 농기계 교통사고가 많은 시간대: 경운기/오후 6~8시, 트랙터/오후 6~10시 (농업공학연구소, 2003)



◎ 전도(넘어짐)·추락의 예방 방법

- 고령 농업인 농작업 사고의 주요 원인
- 고령자는 균형유지능력과 다리근력이 저하되며, 자세 변화 시 어지러움을 느껴 넘어지기 쉬움. 또한, 뼈의 강도와 관절 약화로 작은 사고에도 고관절이나 허리 손상 및 심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방법 1. 미끄러운 논둑이나 비탈길 등 주의

-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짐으로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미끄럽거나 경사진 길을 가는 것을 피한다.
- 고무신 등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을 피하고, 미끄럼 방지가 부착된 신발을 신는다.
- 논·밭 두둑을 충분한 폭으로 성형하고, 경사지를 완만하게 한다.
- 물이나 기름이 작업장 바닥에 누출되어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방법 2. 나무 오르거나 사다리 사용 등 피하기

- 과수 오르기, 사다리 작업 등 높은 곳의 작업을 되도록 피한다.
- 사다리 등 작업 발판을 넓게 하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한다.
- 경운기 보조석과 같은 농기계 옆좌석에 탑승하지 않는다.



방법 3. 작업장 바닥을 항상 정리·정돈

- 발에 걸릴 수 있는 소소한 작업 도구, 전선 등을 항상 정돈한다.
- 충분한 통로와 출구 공간을 확보하며, 날카로운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지 않도록 정리한다.
- 통로나 작업장 바닥에 높낮이 차가 없도록 평탄하게 정리한다.

방법 4. 어두운 창고나 계단 등에는 조명을 충분히

- 창고나 계단 등의 조명을 충분히 하고, 스위치는 밖에 설치하여 어두운 상태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고, 계단 디딤바닥을 넓게 하며 계단 높이를 균일화한다.
- 색채의 대조를 이용하여 위험한 곳이나 계단에 표시한다.

작업 피로 회복 방안

1시간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다. 이때 5분은 몸을 풀어주는 체조를, 5분은 앉아서 쉰다.

◎ 작업 중 피로가 덜 쌓이게 하는 방법

- 가벼운 일이라도 장시간 계속하지 않도록 하고, 과중한 일은 지속시간에 특히 유의한다.
- 동일작업을 계속하지 말고 가능하면 변화 있게 일한다.
- 같은 자세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작업 시에는 휴식보다 힘든 부위를 풀어주는 체조를 한다.
- 오랜 작업 후의 긴 휴식보다는 피로를 느끼기 시작할 때의 짧은 휴식이 더 효과적이다.

◎ 작업 후 피로 회복 방법

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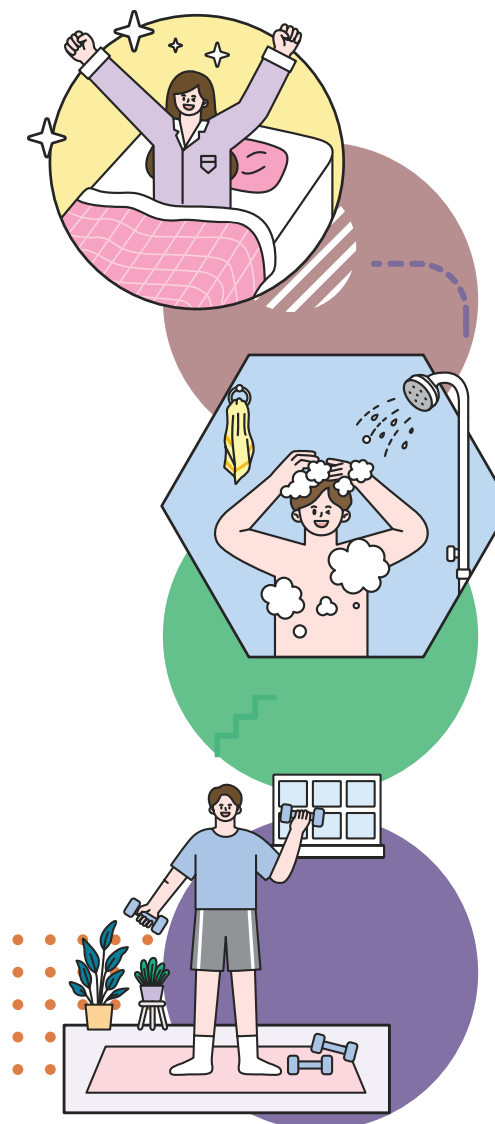
- 편안한 수면을 위해 잠들기 전 술·커피·담배, 격렬한 운동, 과한 수분섭취 등을 삼간다.
- 과식을 피하고 소음·빛의 자극을 최소화한다.
- 따뜻한 물로 20분 정도 목욕을 하는 것이 좋으며, 소변을 미리 본 후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목욕

- 고령자는 고온욕(42℃ 이상)이나 사우나보다는 따뜻한 느낌의 미온욕(37~39℃)을 충분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목욕을 끝내고 나올 때 체온조절이 잘 안되어 한기를 느낄 수 있으므로 발에 약간 차가운 물을 끼얹고 물기를 가능한 한 빨리 닦도록 한다.
-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이나 매트 깔고 손잡이를 달아 목욕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운동

- 고령자는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추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운동은 유연성을 키워주는 맨손체조, 걷기, 가볍게 달리기, 등산 등이 고령자에게 적합하다.
- 몸이 더워지는 정도의 느낌이 오는 운동이면 도움이 되며, 보통 하루 20~30분 정도를 1주일에 3~4회 정도 규칙적으로 하면 좋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이슈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농업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지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와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출처 | 전라남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2021년 10월 19일 제정, 2023년 1월 1일 시행

고향사랑기부제는?

-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할 수 있다.
 -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법인은 기부 불가)
 -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제공(지역특산물, 지역상품권 등)
 -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 한도까지 16.5% 세액공제 혜택
- ※10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는 기본 10만 원에 나머지 90만 원의 16.5%인 14만 8,500 원을 더해 총 24만 8,500원 받음. 여기에 최대 30만 원 수준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음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소중하게 사용된다.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답례품 활용으로 지역 경제를 살린다.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홍보 및 판로를 확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된 정책으로, 일본은 ‘고향납세제’ 도입 첫해인 2008년 모금액이 865억 원이었으나 2020년의 경우 7조 1,486억 원으로 83배가 늘었다. 또한, 기부 건수는 650배가 증가하였다.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을 지킬 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21년 8월 개정, 2023년 1월 1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는?

- 식품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
 -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이 감소한다.
 -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듦
-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도약,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다.
 -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

소비기한 도입 후 주의할 점

- 식품별 보관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제조·유통·보관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해당 보관방법(냉장:0~10℃, 냉동:-18℃)에 따른 온도 철저히 준수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
 -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을 의미하므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 금지
-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한다.
 - 우유 등 냉장 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
 - 식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할 때 보관방법, 날짜,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는 습관 필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으로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환경까지 지킬 수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t, 처리 비용은 1조 원이 넘는다. 식품안전정보원은 2021년 자료에서 소비기한 도입 시 10년간 소비자는 7조 3천억 원, 10년간 산업체는 2천 2백억 원 상당의 지속적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



소비기한 표시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천주교 광주대교구청, 상생 협업 눈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에서 김희중 대주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생태환경농업연구소와 친생태환경적인 농업 실천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과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 환경보존과 마을공동체 중심의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저탄소 유기농업 시범 모델 개발 실용화', '마을공동체 중심의 유기농 생태 마을 조성'과 확산, '지속 성장 발전 가능한 농업·농촌 생태계 회복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친환경농업연구소 최덕수 팀장(061-330-2501)

보성 유기농 녹차 1,700kg, 프랑스 본격 수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보성군 소재 보림제다(주) 농업회사법인에서 생산한 유기농 녹차 1,700kg을 차 수출 전문업체인 월드티(주)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프랑스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지난 3월 프랑스에 보성 유기농 녹차 200kg 시범수출 후 2차 수출로 이어져, 유럽 수출확대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수출 수요국에 맞는 제품생산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및 수출 전문업체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수출제품 개발과 수출지원 기반 구축으로 전남 차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차산업연구소 김은혜 연구사(061-850-2707)



지역특화 가공식품, 해외시장 마케팅 효과 특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7월 28일 대한민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비축기지에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수출 전문업체인 (주)네시푸드에프앤비를 통해 전남에서 생산하는 지역특화 가공식품 미국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지역 특화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문 수출업체를 통한 우수 가공식품 경영체 발굴 등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해외 여러 국가로 가공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자원경영과 홍우진 연구사(061-330-2593)



수출 딸기, 병해충 방제기술 현장 컨설팅 호응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8월 17일 육묘기술과 병해충 방제기술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담양군 금성딸기출하위원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기술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특화작목인 담양 딸기 수출확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금성딸기출하회는 올해 3회에 걸쳐 메리퀸·죽향 품종을 미국과 싱가포르에 3.4톤, 6,300만 원 분량을 수출하였다. 담양 딸기는 품질이 우수해 향후 전남의 대표 수출 농산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자원경영과 홍우진 연구사(061-330-2593)



고흥산 가공식품, 캐나다·미국 수출 견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지역특화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에 나서 고흥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을 캐나다와 미국에 수출하였다. 고흥군 소재 해맑음농업회사법인(유)에서 친환경 재배로 생산한 귀리 제품인 자색구마국수, 새싹귀리 국수, 누룽지크래커, 귀리산식 및 리얼유자주스 등으로 6,500봉지, 1,400만 원 분량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그동안 전문 수출업체 발굴과 함께 지역특화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문의 | 자원경영과 홍우진 연구사(061-330-2593)



해남 유기농 가바쌀, 재배기술 컨설팅 호응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해남 땅끝환경친화경영농조합법인 참여농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남 유기농 가바쌀 수출전문단에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벼 전문가인 (주)신젠타코리아 이인 박사를 초청하여 출수기 물관리 및 병해충 적기 방제에 대한 내용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땅끝환경친화경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유기농 가바쌀을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 129톤, 5억 9,000만 원을 수출해 국내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문의 | 자원경영과 홍우진 연구사(061-330-2593)



수출딸기, 재배기술 맞춤형 컨설팅 중점 지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담양 프리미엄 딸기 미국 수출을 위해 금성딸기출하회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우량묘 생산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지역 특화작목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하우스 난방기 및 수출용 포장재 지원, 육묘기술·병해충 관리 등 수출 전선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찾아가는 수출현장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 자원경영과 홍우진 연구사(061-330-2593)



방울토마토, 어깨동무 컨설팅 효과 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보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16호를 대상으로 경영기록 데이터를 활용한 '방울토마토 어깨동무 컨설팅'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단기보다는 수량 위주, 당도보다는 경도 위주로 재배하고 항바이러스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농가소득을 안정화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어깨동무 컨설팅은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분야별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농업 분야의 종합컨설팅이다.

문의 | 자원경영과 마은미 연구사(061-330-2582)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보급, 농가소득 향상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비닐하우스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단동하우스에 자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적용하여 추진한 결과 노동력 절감, 상품성 향상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로 농가 규모나 작목에 맞는 3가지 유형을 개발해 보급해온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이 15%나 향상되었고 경영비와 노동력은 각 3.6%, 14.3%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기술보급과 용희경 지도사(061-330-2783)



청년창업타운, 농식품 가공장비 102종 오픈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창업과 농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지난해 개관한 청년창업타운 제품지원센터의 가공장비 102종을 8월 1일부터 2차 오픈하였다. 제품지원센터는 농식품 제품연구·개발 장비 130여 종과 함께 전처리실, 성형실, 건·습식 포장실 등 가공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농업인이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시제품 생산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공품을 연구 및 개발할 수 있다.

문의 | 농촌자원과 최지현 지도사(061-330-2744)



논 이용 발작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 본격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보성군 복내면 농가 포장에서는 논 이용 발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기술보급 사업의 일환인 '논 범용화를 위한 지하수위 제어시스템 시범사업' 현장 연시회를 가졌다. 이번 연시회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무굴착 땅속배수기술'을 논가에 보급해, 논을 이용한 발작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논에 발작물을 재배할 때 발생하는 침수나 과습 등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

문의 | 기술보급과 박정선 지도사(061-330-2773)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맞춤형 컨설팅 호응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활성화와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식품가공 전문가(고원푸드 박종진 부사장 마래에프에스 이기표 대표)를 초청한 현장 컨설팅을 지난 4월에 시작해 8월 11일까지 진행하였다. 총 28회에 걸쳐 HACCP 공정, 가공설비 및 공장배치, '음료·청·절편·쌀강정·누룽지·말랭이 제조기술' 등 시군 요구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 18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 자원경영과 정현희 팀장(061-330-2561)



양잠농가에 우량 누에씨 270여 상자 공급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가을철 누에 사육기를 맞아 순천, 나주, 화순 등 도내 10여 개 시군 양잠농가에 자체 생산한 우량 누에씨 270여 상자를 공급하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에서는 2004년부터 직접 누에를 사육하여 철저한 소독과 영양 관리로 우수한 누에씨를 생산, 봄·가을철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분양받은 누에씨는 건강 기능성 식품 원료로 이용되며, 지난해 전남 양잠농가에서는 건조누에와 홍잠 생산으로 3억 5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문의 | 곤충잡업연구소 이유범 연구사(061-286-5666)



전남 농특산물로 만든 '아따 콤부차' 출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가 연구·개발한 RTD(Ready To Drink) 콤부차 제조기술을 도내 업체(췌미플러스)에 이전하여 상품화한 '아따 콤부차' 브랜드가 출시되었다. 아따(ATA)는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Any Time To Anywhere)는 뜻과 함께 전남 방언인 '아~따'가 차용된 이름이다. 아따 콤부차는 보성 녹차, 고흥 유자, 해남 비트, 완도 비파, 장흥 블루베리 등 전남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고품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 차산업연구소 정아영 연구사(061-850-2704)

미래로 가는
**전남
농업**

 독자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엽서에 이번 호 퀴즈 정답과 함께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을
 읽은 소감이나 알고 싶은 농업정보 등을 적어
10월 31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주세요.
 독자엽서를 보내신 분 중 30명을 선정해
 '유자즙' 또는 '배도라지 진액스틱'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독자
선물**15명**고흥군 '노란소쿠리'
유자즙 선물용(25포)**15명**나주시 '좋은영농조합법인'
배도라지 진액스틱참여
방법
 독자엽서 뒷면의
 모든 문항에 표시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발표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11·12월호 독자마당
퀴즈
당첨자**7·8월호 퀴즈 당첨자**

고흥군 '엔자임팜' 곡물당 과일젤 3종 세트 / 15명

 이*주(광주시 광산구), 위*아(광주시 동구), 김*민(담양군 봉산면), 나*웅
 (경기 광주시), 김*중(나주시 그린로), 박*환(광주시 북구), 김*원(완도군
 군외면), 이*남(완도군 신지면), 박*우(충남 천안시), 정*경(광주시 북구),
 송*찬(광주시 광산구), 정*울(나주시 빛가람동), 임*경(완도군 완도읍),
 박*숙(경기 시흥시), 이*만(장성군 북일면)

구례군 '지리산특용작물재배팜' 산수유청 세트 / 15명

 유*웅(나주시 예향로), 이*균(광양시 광양읍), 백*진(경기 남양주시),
 최*화(화순군 한천면), 안*형(장성군 장성읍), 김*진(고흥군 남양면), 정*준
 (영광군 영광읍), 장*희(영광군 백수읍), 이*곤(대구시 중구), 전*희
 (보성군 벌교읍), 정*정(경남 통영시), 윤*진(서울시 구로구), 이*도
 (경기 성남시), 홍*진(서울시 강남구), 조*애(인천시 미추홀구)
Quiz독자
퀴즈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배 농사를 짓고 있는
 보성군 조효익 명인은 2019년 전라남도 유기농명인
 '몇 호'로 지정되었을까요?

① 20 ② 21 ③ 22 ④ 23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과학기술 개발 및 보급·지도 등의
 농촌진흥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안전한 먹을거리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